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23일)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불교문화 보존정책 '주목'
차별금지·기후위기 '관심'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 분석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규제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국가차원 문화재 보존·방재 관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가적 불교유산 보존·멸실방지는 선택 아닌 국가가 해야할 의무사업"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전통사찰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무형 전통문화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사찰과 스님의 존재 덕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들이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통·불교문화 전승과 보존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불교 및 문화유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전통문화 보존대책의 필요성에 공감입장을 밝혀, 이번 대선은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대안도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 등 대사회적 현안도 불자들이 주목하는 핵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10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당내 전통문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입법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등 사찰부지에 중첩된 규제 완화, 종부세 등 사찰의 세제부담 경감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 자부담율 비율 감소를 통해 국가지원을 늘리고 사찰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논란의 중심인 문화재 관람료 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폐지도 약속했다. 전통사찰의 전기세 부과기준이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도 공언했으며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위원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수적인 전기료·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교 문화재는 대부분 사찰이나 종단 등의 소유이며,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기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방재 등 관리를 지원하고, 종교를 넘어선 K-콘텐츠와 연계 육성하는 진일보한 문화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해결 등 중점
보존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이재명·윤석열 가장 적극적
안철수·심상정도 기조 공감
탄소 중립 관심도 높아 주목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2월 3일 발표한 전통문화 관련 공약 역시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모양새다. 선대위는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와 국립공원 제도 개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대표공약으로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을 비롯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0% 자부담율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결국 여야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각기 발표한 공약이 큰틀에서 같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조직으로 각각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종교평화위원회(국민의힘)' 설치도 약속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가 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해온 불교계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며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이행점검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으며, 안철수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비율 조정을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경우 다소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의 불', 한반도 평화 염원 밝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화합,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점화됐다.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 혜자)가 2월 12일 도안사서 등화대 점화법회를 개최한 가운데,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선묵 혜자 스님이 옮기고 있다. 〈현장 기사 4면〉 글·사진=노덕현 기자

동국대 건학위 '불교사전' 재간행한다

16일 기관장 회의서 5대 공통의제 발표

사전·부처님 생애 발간해
건학이념 구현, 불법 홍포
메타버스·유튜브 활용도

현재 주요 포털에서 불교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원불교대사전을 인용한 검색결과를 확인된다.

이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불교사전〉을 재간행해 보급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불교를 바르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16일 제3회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5대 공통의제 발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공통의제는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신행) △건학이념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등화(교육) △건학이념 및 인문학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교육) △건학이념 관련 도서 발간(교육·연구)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및 유튜브 활용방안 연구(신행·교육) 등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은 건학이념 확립과 대중포교를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사전〉을 발간한다. 교내 협력기관으로는 불교학술원과 출판문화원이 참여한다.

〈부처님의 생애〉는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등을 중심으로 간행위원회가 구성돼 편찬에 들어가며, 〈불교사전〉은 황순일 서울 불교대학장과 석길암 경주 불교문화대학 교수 등으로 재간행위원회가 구성된다.

계획을 발표한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은 "주요 포털에서 불교 용어를 검색하면 원불교 대사전으로 검색이 된다. 이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 중 각각 간행위원회를 구성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는 부처님께 봉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건학이념구현 교양교과목도 재점검해 개편이 추진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많은 시간에 걸쳐 공통 의제에 대한 추진 상황 발표와 논의들이 이뤄졌다"면서 "학교 건학이념 구현과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축표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봉축위원회, 불기 2566년 봉축표어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에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Back to the Life of Blossoming Hope)'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은 2월 17일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발표했다. 이번 표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후보작 가운데 선정됐으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함께 올해 봉축표어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봉축위는 "사회적 어려움과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한다"며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는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 10대사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 2월 16일 신년회견문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해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문건으로 대체됐다. 사진=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변화된 승가교육환경에 맞게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교과목을 기존 34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대승불교 개론〉·〈신편치문(新編緇門)〉 등 교재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필수교재 개발 · 배포 주력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6일 배포한 신년회견문과 사업계획을 통해 "출가인원 감소와 승가의 교육여건이 변화해 표준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 21세기 승가상 정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교학과 수행을 통해 현대적 불교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 발심과 원력을 세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회견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문건 배포로 대체됐다.

진우 스님은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기존 34개 교과목을 27개로 축소하고 수행실수를 신설해 전통승가교육을 강화했다. 변화된 표준교육과정은 올해 신입 학인부터 적용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승가 교육여건과 사찰교육 지형은 급격히 변화했다. 10년 전 표준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다방면의 백과사전적 지식보다는 21세기 승가상 정립에 필요한 핵심적 교학과 수행을 통해 현대적 불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년별 교육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 갖춰 발심과 원력을 세우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실 반영한 표준교육 선포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교육교재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발간을 추진한 〈불교 개론〉에 이어 올해에는 〈대승불교 개론〉·〈신편치문〉 발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사 · 불교사 · 불교상담 등 표준교과 필수 및 선택 과목에 대한 교육원본(本) 검인정 교과서 지정이 추진되며 신개념 디지털 교재인 스마트메이커 교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 신년회견문 발표
표준교과목 34개서 27개로 축소
백과사전식 교육보다 내실 추구
수행실수 신설 불교가치관 확립
'대승불교 개론' 등 교재 발간도

진우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필수교재에 대한 교재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승불교 개론〉을 교육원본으로 편찬해 학인들에게 대승불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바른 안목을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글세대 학인들이 한문불전 강독을 효과적 학습할 수 있도록 〈신편치문〉을 시작으로 전통교과목 교재를 새롭게 편찬하겠다"며 "예전처럼 방대한 분량의 치문을 문리가 터질 때까지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핵심적인 편(編)을 선별해 내용을 간결하게 줄이고 문법, 해설 등을 학습하기 편리하게 제공해 한문불전 강독의 참 맛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가 결사체 지원 확대

어린이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교정교화, 노숙자 복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포교 · 사회실천활동을 전개 중인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지난 2018년 승려연수 인증 및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현재 31곳이 활동할 정도 활성화돼 있다.

진우 스님은 "결사구성원들의 원력이 승가 구성원 각자의 마음과 전법활동으로 스며들어 나와 세상을 평화로 물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해 널리 홍보하며 격려 · 지원해 승가결사체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가 장려 프로그램 지속 개발

이와함께 승가연수교육 인문소양 강화, 행자교육 내실화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원은 출가 장려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SNS 홍보를 확대하며 교구 출가지도법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가연수교육은 인문사회문화 과정과 선교율 과정 등에서 전문화와 다양화를 모색한다.

진우 스님은 현대 승가교육은 추상적 깨달음이 아닌 중생과 함께 하는 깨달음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깨달음은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의 삶 속에서 익어간다. 현대사회는 보살만행을 통한 깨달음의 자기 검증이 중요한 덕목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 깨달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타자와 함께 하는 깨달음"이라며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승가교육 종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탈종교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의 실상을 바로 보고 서로 탁마해 지혜를 모아 극복해낼 때 새로운 희망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교육원은 이를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통통한 종책 과제로 전법포교 스위치 'ON'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2월 16일 종책발표 기자회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제8대 포교원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8대 포교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전법ON! 제8대 포교원'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3대 종책기조와 10대 과제를 포함한 전법포교 비전을 공개했다.

이번 비전은 2021년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 이후 종단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바탕한 것이다.

'순례', 불교 대표 수행으로 확산

첫 번째는 '전법On, 신행중심 포교'로 순례 프로그램으로 수행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월결사 순례를 시작으로 교계 안팎에 일고 있는 순례와 걷기명상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기 위해 포교원은 교구별 맞춤형 순례코스를 개발한다.

지난해 화엄사와 천은사 등의 순례프로그램을 시범제작한 포교원은 올해에는 본사 4곳과 말사 4곳 등 총 8개 사찰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 12개의 사찰 연계 순례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순례 통합정보시스템도 선보인다. 5개년 계획으로 24개 본사 등 총 48개 순례코스가 구성되면 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사찰' 중심 전법 포교로 현장 호응 제고

두 번째는 '전법 플랫폼, 소통하는 전법지원'이다.

전법 플랫폼 기조 변화의 핵심은 '사찰'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각종 종책 개발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포교현장에서 이러한 종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년간 총 48개 순례코스 개발
순례문화 조성, 수행문화 확산
108전법도량 · 사찰 포교사 등
사찰과 연계한 포교활동 강화
코로나 엔데믹 대비 결집대회

먼저 포교원의 주요 포교인적자원인 '포교사' 제도가 지역 중심에서 사찰 중심으로 변화된다. 포교사단과의 소통을 통해 교구단위 재배치와 포교사 고시 개편 등도 추진된다.

전법중심도량 또한 활성화 된다. 지역별 전법중심도량 미지정 교구에 전략도량을 지정토록 유도하고 포교종책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62곳인 전법중심도량을 연 10곳 이상 확대 지정, 8대 포교원 기간 총 10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불자' 자부심, 포교 결집으로 높인다

마지막 기조로는 '전법IN, 포교역량 전문화'가 제시됐다. 앞선 전법ON과 전법플랫폼이 불교 대내적인 비전이라면 전법IN은 대외적인 비전의 성격이다. 주요 과제 중 핵심은 '포교원력 결집대회'로 비대면 포교에 매진할 수 없었던 불교계 상황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불자들이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갖는 희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분야 포교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포교위원회, 신도연구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중앙종회, 포교신도단체가 참여하는 포교전략회의를 개최, 포교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한 포교기금 확충도 제시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전법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변화해야 할 때"라며 "전법 현장에서 포교인력들의 활약에 따라 포교가 좌우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포교 현장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교 현장 과제 '미래' '소통' 꼽혀

포교종책 설문조사 살펴보니

조계종 포교원은 2022포교종책 발표에 앞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본사 스님들과 포교 신도단체장 등 총 476명을 대상으로 포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포교원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계층 포교 집중대상으로는 청소년(54.2%)과 어린이(45.2%), 청년(42.9%) 등 미래세대가 꼽혔으며, 포교종책 수립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63.5%), '최신 트렌드 적용'(30%) 등 현장포교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교종책 사업 중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84.7%)과 '사찰 모바일 앱 개발'(73.3%)이 꼽혀 청년활동가 지원이나 미래세대 포교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포교를 준비하는 키워드로는 '뉴미디어 포교'(38.8%), 명상 힐링(29.1%), 기도 수행(23.0%), 도심포교(20%) 순으로 꼽혔으며 특히 뉴미디어 포교는 법랍 20년 이하 스님들과 어린이 청소년 단체 활동자, 봉사와 문화 등으로 포교방법을 전개하는 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종책을 만들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한국 개신교 근현대 훼불 'A to Z' 망라

정행 스님, 박사학위 논문서 훼불 원인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훼불' 주제로 박사 논문은 처음
해방부터 현재까지 훼불 576건
정교분리 위배 311건으로 최다

그릇된 선교관 · 정치화 주요원인
상호 바른 이해있어야 훼불없어
경주 동국대서 학술총서 예정돼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개신교 신도들의 훼불 역사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대구 보원사 주지 정행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학과)은 '훼불의 원인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한국 개신교의 훼불을 중심으로'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훼불' 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는 정행 스님의 논문이 처음이다.

정행 스님은 개신교의 훼불을 유형별, 연대별로 분석해 원인을 고찰하고, 대응 전략 등을 모색했다. 스님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 방화 △파괴 · 훼손 △정교분리위배 △종교자유침해 △비방 · 폄하 등으로 이뤄진 훼불 건수는 총 576건으로, 가장 많은 훼불 유형은 정교분리위배(311건)였다. 가장 많은 훼불이 일어난 년도는 2010년으로, 이 해에만 50건의 훼불이 일어났다. 연대별로는 1995~1999년대에 급격하게 훼불이 증가했으며 2005~2009년대 1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훼불이 발생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2008~2013)로 193건의 훼불이 발생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정부마다 발생한 유형별 특징도 있다. 살인 · 방화는 김영삼 정부 당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29건의 불상 파괴 · 훼손이 이뤄져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교분리 위배는 이명박 정부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43건이 이뤄졌다.

시기별로 유행했던 훼불 유형도 차이가 있다. 살인 · 방화와 파괴 · 훼손은 1990~1994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0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교분리 위배는 해방 직후 많이 발생하다가 1980년대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정행 스님은 "방화 · 파괴 등의 훼불 행위와 개신교 신자 수 증가와 직접 관계는 없으나 정부가 개신교 편향정책을 펴고 공직자가 정교분리를 위배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할 때 개신교 신자 수는 증가했다"면서 "1995~2005년 사이에 개신교 신자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다시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교분리 위배와 종교자유침해를 통해 개신교 교세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개신교의 훼불 원인에 대해 개신교 내부 원인과 불교계 내부 원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개신교 내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배타적인 선교관과 정치세력화다.

정행 스님은 "보수 개신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 교세를 이용해 행정부의 종교정책과 입법부의 법률 제정,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하는 일이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지만 개신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성은 이웃 종교와의 갈등을 가져왔고, 개교회주의는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부추겼다"며 "정부와 불교계에 사이의 골 깊은 갈등 저변에는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근본주의적 신앙 풍토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계 내부 원인으로는 종권 다툼 등 내분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던 점을 꼽았다. 스님은 "불교계는 승단 중심의 운영으로 재가신도조직이 약하고 해방 이후 종권 다툼으로 내분이 끊이지 않아 종교편향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대응전략으로는 △종교간 협력 △불교계의 자성 △훼불 예방 대책 수립 및 신속한 대응 △종교차별 방지 교육 및 홍보 △불교 바로 알리기 △시민사회단체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정행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리는 작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불교를 바로 알리는 일을 해야 하며 불교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면서 "불교를 바로 알리는 일이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사라지게 하고 훼불 행위를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정행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 보완해 올해 하반기 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12일 봉행한 기도회.

사노위, "코로나 백신 피해 방치 말라"

2월 12일 희생자 추모 기도회
피해 진상규명 · 대책마련 촉구

"정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

2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추모기도회' 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40여 명이 참석해 피해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 이하 코백회)가 백신 희생자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물론 백신부작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번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다.

코백회에 따르면 2월 6일을 기준으로 백신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1835명이다. 주요 이상반응 총 신고건수는 44만 9972명이다. 백신을 맞고 유산된 아이들은 2056명, 총 누적 사망자는 3891명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도회에는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특별법' 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함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19 피해판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사노위 스님들의 기도회에 이어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피해사례 증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 후에는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도 넘는 종교편향에 모니터링 나선다

종평위, 2월 14일 모니터링 논의
홈페이지 제작 · 인력충원 등 검토
사업 진행 · 예산 파악해 사전 예방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보다 폭넓은 종교편향 예방과 저지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교편향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종교평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의 핵심은 각종 언론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행해지는 종교편향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지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형태와 진행 정도, 예산지원 등도 파악 가능하다는 게 종평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종교 편향을 감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단체와의 인력 연계로, 모니터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종평위의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은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 기점 · 소악도가 '예수 12제자' 로 도배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폭제가 됐다.

신안군은 '천사(1004)섬'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점 · 소악도에는 베드로' '안드레아' 등 예수 12제자의 이름을 본뜬 예배당과 순례길 등을 만들었고 건축물의 실제 모습은 러시아 정교회를 닮은 지붕과 십자가가 있는 첨탑 등의 모습을 띄고 있어 "지자체가 앞장서서 기독교 성지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사업은 지역종교계 주도가 아니라 예배당이 조성된 토지 대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매입, 혈세를 투입해 지자체가 나서 사업에 추진했다는 점에서 종교편향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평위는 현재 신안군에 사업계획안과 예산, 예배당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며 교구본사와 협의, 항의공문 발송과 성명서 발표, 집단 의사표현 등 향후 대응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이번 모니터링 사업의 목표는 앞으로 이 같은 종교편향 사례가 시도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에 있다"며 "특정종교를 위한 국가예산 편성을 감독하는 한편 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측이 수년간 문제로 지적한 국립합창단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2월 17일 조계종 사회부와 갖은 간담회에서 올해 공연에서는 종교색을 빼고 공연하겠다며 선곡 개선을 약속했고 이사회를 통한 규칙을 개정, 지난 50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조 스님 당선

2월 17일 산중총회서 확정
후보 2인 사퇴로 단독출마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에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이 선출됐다.〈사진〉

은해사는 2월 17일 차기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덕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산중총회를 앞두고 은해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스님은 애초 법일 스님과 덕조 스님, 불산 스님 세 명이었으나 법일 스님이 2월 15일 사퇴입장을 밝힌데 이어 불산 스님도 사퇴함에 따라, 덕조 스님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날 덕조 스님은 당선증을 전달받고 "동곡 일타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어른스님을 잘 모시고 문도문중 스님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누겠다"며 "앞으로 은해사가 대중의 화합과 포교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신행과 전법도량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덕조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시미계를 수지하고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하양포교당 · 영천 진불암 · 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포교국장과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제1주제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실록 · 의궤 오대산 돌아오나…결의안 통과

2월 14일 본회의서 의결, 원봉안처 봉안 정부 촉구

국립 전시관 설립안 제시
월정사 초입 '실록박물관'
국유화 대안으로 부상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위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을 병합한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전체 회의에서 두 결의안을 병합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는 고난을 겪다가 어렵게 국내에 환수됐으나, 원봉안처인 오대산이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어 불교계와 강원도민들을 중심으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오대산 봉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국회는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지닌다'는 근원적인 대명제 아래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원봉안처인 오대산에 즉각 봉안되도록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을 고수하는 문화재청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염원하는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기관인 조선왕조실록전시관의 설립 · 운영을 통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 결의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정사 일주문 인근에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이 설립된 상태로 월정사가 해당 박물관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환지본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월정사 역시 해당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도 국립전시관 설립에 긍정적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2월 10일 국회 답변에서 "오대산 사고본이 월정사로 갔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정사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여야 의원들과 뜻을 함께해준 조정래 선생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회 결의안은 민의(民意)를 모으는 과정이었고, 환지본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행정부처가 이 민의를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기원 '평화의 불', 도안사 봉안

108평화보궁 도안사, 2월 12일
등화대 점화 및 시원비 제막 봉행

도안사 500여 대중 운집
한반도 평화 정착 기원해
여야 대선 후보들도 축사


이날 행사에서 대중들이 '평화의 불' 사원비를 제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화합,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봉안됐다.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 혜자)는 2월 12일 도안사 경내에서 등화대(燈火臺) 점화법회 및 시원비(始原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화대 점화법회 및 시원비 제막식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갈등 해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세계인들의 어려움을 부처님 가피로 치유하고자 하는 기원의 자리로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등 스님들과 서영교 김성환 국회의원, 김선동 前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평화의 불 등화대 점화, 평화의 불 시원비 제막, 내빈소개, 경과보고, 등화대 점화 고불문 낭독, 청법가, 점화 법어, 기원사, 축사, 축가,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부처님 탄생성지에서 이운해 온 평화의 불이 정착해 봉안되는 점화법회를 봉행하오니 남북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평화가 정착되길 발원한다"며 "부처님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세세생생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의현 스님은 "구법의 길에 있었던 곡절의 아픔과 어려움이 마디마디 서려 있는 '평화의 불'이 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에 안착해 그 빛을 발하고자 등화대에 점화하니, 중생의 안식처로 자리할 더할 나위 없는 환희이자 축복이다"고 법문했다.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은 기원사에서 "부처님 탄생성지에 있는 '평화의 불'을 구법순례의 길을 따라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이곳 108평화보궁에 무사히 안착하는 법회를 봉행하니 참으로 뜻깊다"라며 "앞으로 청담문도회는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신심을 다지고, 53기도도량 순례를 통해 기도원력을 세우고, 108평화순례단을 통해 남북의 평화통일 원력을 담은 평화의 불이 지혜의 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불 봉안에서는 대선을 앞둔 여야 각 후보의 축사가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성환 국회의원 대독을 통해 "평화의 불이 계층과 세대,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뜨거운 화합의 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점화법회는 불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다짐하고 종교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다시 한번 불교계가 큰 힘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초석을 놓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화의 불'은 룸비니동산 평화의 호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자리하고 있는 상징으로 1986년 UN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불이다.

2013년 4월 채화(採火)된 이 불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티베트 라싸를 거쳐 한반도까지 봉송됐다.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의 특별기원법회를 시작으로 평화의댐과 DMZ 지역을 비롯해 108산사와 108군법당, 53기도도량, 중국 미얀마 등 해외에 분등돼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어 왔다. 노덕현 기자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 회향

전체 54강 중 개근 26명, 수료 87명

종단본 〈불교성전〉 보급과 비대면 신행활동 정착을 위해 진행된 '2021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이 2월 15일 동안거 해제와 함께 회향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주최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관하는 이번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은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강의에는 사찰 ·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 유관단체의 실무자와 회원 총 108명이 동참했으며, 강좌는 매일 오전 10시,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총 54강으로 총 108명의 동참자 중 87명이 50% 이상 출석하여 수료 자격을 획득했으며, 개근 학생은 26명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유 배달로 모은 돈, 군포교에 쓰여지길"

이근표 포교사, 1000만 원 기부
20여 년 군포교…"삶의 원동력"



20년간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조계종이 추진 중인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전달한 포교사가 있다.

이근표 포교사(65세, 진공 · 사진)는 2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청주 옥산면에서 작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군법당에서 봉사해온 이근표 포교사는 얼마 전 교계 언론을 통해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건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포교와 미래 불자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기금 전달에 마음을 낸 것으로 전한다. 이 포교사는 "형편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시에 뜻을 세우고 준비를 하자고 다짐했다"며 "가족들과 한뜻으로 기도를 하며 매일 차곡차곡 모아온 것이기에 더욱 기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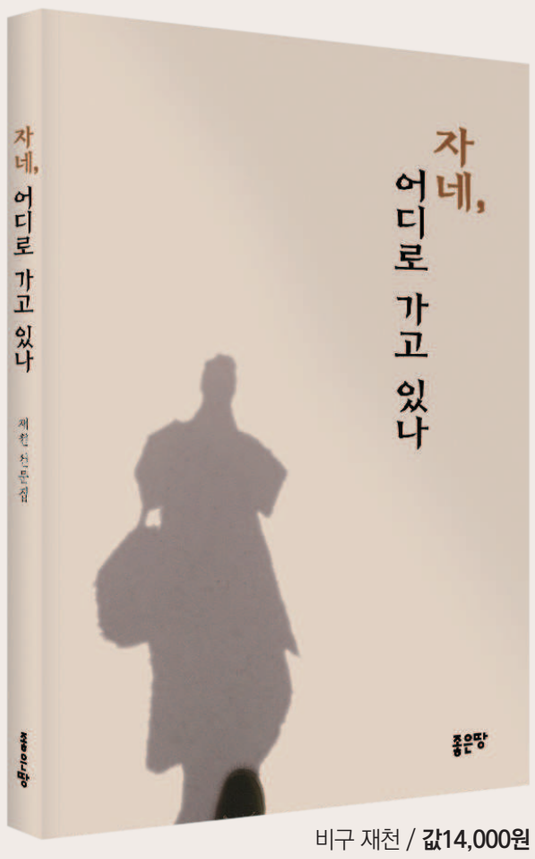
이근표 포교사는 매일 오전 4시면 잠에서 깨어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올린다. 기도 후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 직접 우유배달에 나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이 포교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천 정방사에 모시면서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주말마다 정방사를 찾았던 이 포교사는 군법당 법사로 나가던 당시 주지 석구 스님을 따라 군인들을 만나며 군법당 봉사를 시작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군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2016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이 포교사는 "빵과 우유를 가득 채운 트럭을 몰고 일요일마다 군인들을 만나러 가는 일은 한 주의 쉼과 동시에 또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근표 포교사는 선방 대중공양도 수년간 이어왔다. 결제 때가 되면 유제품을 트럭에 가득 채워 선방으로 향한다는 이 포교사는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영양소가 가득한 우유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기쁘다"며 "힘들게 번 돈이지만 건강한 신체가 있기에 공양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달 당일에도 "대리점에서 가장 비싸고 영양 좋은 우유를 챙겨왔다"며 원행 스님에게 직접 가져온 우유를 선물하기도 한 이근표 포교사는 "불사나 대중공양에 동참한 후에는 항상 일이 잘 풀렸다. 얼마 전부터 작게나마 연금도 받게 됐으니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베풀고 살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보문고, yes24, 네이버 쇼핑 등에 제목을 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 재천 / 값14,000원

자네, 어디로 가고 있나

딸꾹질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듯,
일체중생이 하루빨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은 「금강경」과 편지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하여 정리하여 엮은 글이다.

글의 시작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하였던 때이다. 입방 후 동안거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의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경을 보고 더욱 맛나게 기획, 편집하며 평생 공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곳도 있고 길게 풀어서 쓴 곳도 있다. 어려운 한자나 생소한 단어들에는 저자의 해석을 추가해 놓았다. 중간중간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과 인연 닿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한다.

◈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사찰서점 판매중 ◈ 1권도 전화주문 가능 : 붓다북(구 운주사) 02-3672-7183 / 법우당 031-945-4535 좋은땅

Interview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인류구원할 정신문화 명소”

특별인터뷰 고윤환 문경 시장

문경=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인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국가 · 지역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정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남다른 성과를 낸 공로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봉암사와 김용사, 대승사 등 문경지역 사찰의 유지계승과 문화재 지정 및 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문화적으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어 반갑고 든든하다”고 치사했다. 이어 스님은 “개원을 앞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윤환 시장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완공을 위해 문경시에서 마무리 공사를 위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봉암사 주지 스님과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임기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경시는 고윤환 시장 재임 중 국보 1점과 보물 3점 등 국가문화재 6점과 도지정문화재 16점이 지정됐다. 또한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지원은 물론, 대승사와 김룡사, 봉암사 등 문경 주요사찰 세 곳의 암자를 복원하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통문화 유지전승에 남다른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경시 관내에 있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간화선 세계화를 목표로 내건 명상센터로, 올 4월 2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개원과 함께 1주일간 조계종 제 15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등 한국 선지식들을 초청한 간화선 대법회도 추진 중이다. 고윤환 시장(66)을 문경 시청에서 다시 만나서 그간의 불교관련 문화재 지원 현황과 ‘명상과 치유’를 주제로 한 시정 성과, 문경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기대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편집자 주〉

△그동안 ‘명상과 치유’를 주제로 한 ‘시정 성과’에 대해 평하신다면?

=문경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동안 제시한 시책의 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선 백두대간의 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이 2020년 4월 개장해 현재까지 1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문경 생태미로공원 입장객도 14만 명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전통 참선과 명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공간인 문경세계명상마을을 올해 4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경돌리네습지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귀농인 소득 작물 재배시설과 미돈가, 시설 원예 시범단지와 송정산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영강생활체육공원과 딴봉, 송정산 일대를 연결하는 영강보행교가 준공되면 명실상부한 점촌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청정 자연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힐링도시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의 회복을 돕는 힐링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정신문화인 한국 전통 명상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참선명상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세계인류에 지혜와 평화의 마음을 전달해 1200년 역사와 전통의 봉암사 참선을 국제화할 정신문화의 명소로 만들어 세계 명상지도자들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심적인 명상시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유하는 참선명상을 통해 문화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명상 콘텐츠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고품격 명상 체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2023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문경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세계명상마을을 체험하고자 하는 수도권 2500만 명상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웰빙, 힐링 테마로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에 나서고 있는데, 문경시만이 지닌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과 힐링 휴양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은 힐링과 명상의 도시로, 현재 법륜 스님이 계시는 정토수련원에서 오래전부터 깨달음의 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계종 수도선원인 봉암사에서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세계 명상마을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에서는 舊, 방짜유기 부지 4만 평에 ‘치유의 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은 명실공히 명상과 치유의 ‘힐링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귀농 · 귀촌 힐링공간인 동로면 석항리에 7천 평 규모의 ‘치유 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구 유입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경에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명상과 치유마을 외에 크고 작은 45곳의 폐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1천년 이상 검증 받은 땅으로서 수행과 명상에 매우 적합한 공간이며, 거의 공기 좋은 산에 위치해 천체 관측이 용이하고 요즘 수요가 많은 캠핑에도 적합합니다. 이를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수헌, 산양정행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명상을 매개체로 문경을 찾게 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며, 청년이 모여야 문경이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통한 청년 유인책은 대도시에 비해 한계가 있으나,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한 창업의 지원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경에는 주목할 만한 여러 청년 정착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청년유턴제’ 사업으로 정착한 리플레이스라는 청년기업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한옥 고택을 리모델링해 카페로 활용하면서 1년에 8만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하며 행정안전부의 청년지역 정착사업에 도전해 ‘달빛탐사대’ 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도 들 수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사회, 지자체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있어 넥스트로컬사업(서울청년의 지역 창업모델 발굴프로 젝트), 로컬게더링(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 컨퍼런스)과 같은 청년의 주요 활동지로 문경이 언급됩니다. 최근 청년들의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정신적 공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 속 명상체험을 통한 힐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명상마을이 건립되면 청년을 위한 교육, 체험,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상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고, 힐링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명상마을 조성에 38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의 불교계 관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재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리지역도 지정된 불교문화재가 48점이 있고, 전통사찰도 7곳이 있으며 폐사지도 45곳에 이릅니다.

제가 학창시절 산북면에 있는 김룡사 양진암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불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경전 공부와 불교 공부를 꽤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금강경〉을 다 외울 정도니까요. 문경의 전통사찰 중 대승사와 김룡사, 봉암사는 천년고찰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성철, 청담 스님 등 한국불교 바로 세우기 운동이 펼쳐졌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혜국사 운암사 원적사 심원사 등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김룡사가 운봉사로 처음 창건된 공간인 금선대, 나옹스님이 출가하신 대승사의 묘적암, 봉암사서 감춰진 공간인 용추암을 10년에 걸쳐 복원 정비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듯 사찰 복원 사업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복원해야 된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지난 10년간 저의 피와 땀이 들어간 고귀하고 가치있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40여 년 전 도난 후 남은 탑 부재가 탑동이라는 마을회관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폐사지 부지매입과 학술조사를 거쳐 원래 자리에 탑을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했으며, 마을 이름을 되찾게 된 주민들이 많이 기뻐한 보람있는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선 연임제한으로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계획은?

=귀농 · 귀촌 · 귀향의 기반을 마련해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적 흐름에 과감하게 맞서 인구증가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문경시는 맞춤형 귀농 · 귀촌 · 귀향 정책으로 2019년 1051세대, 1350명, 2020년 1164세대, 1399명을 문경에 정착시켰으며, 그 배경에는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 귀농인 소득작물 시범 사업, 체계적 영농 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 자영업자와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자, 젊은 층의 재택근무 증가로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집을 구하기 어렵고 보금자리 사업도 대기자가 많으며 농촌 빈집도 노후 방치돼 리모델링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귀농 · 귀촌 · 귀향 활성화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최초 이동식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800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임대로 확보해 이동이 가능하고 내진설계가 완비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설치해 귀농 · 귀촌 · 귀향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 ‘새문경뉴딜정책’을 추진하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문경시의 여러 난제 중 가장 어려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경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위기 속에서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확대 방침에 대응키 위해 연초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12개 부처 52개 연계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경북도 이웃사촌마을 사업 관련한 지역 활력 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인구활력 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인구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 중부내륙고속철 개통에 맞춘 인구연결정책 추진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및 젊은 층을 위한 전략적 귀향 · 귀촌 · 귀농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는 청년, 도시민의 유입을 위해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체험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내 노후 주택을 개량해 고향을 떠나있는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1957년 생으로 문경중학교와 문경종합고등학교(현.문경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를 졸업했다. 문경군으로 부터 4년간 새마을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과 인하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했다. 1980년 제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인천시 기획담당관 △청와대 행정관(1996~1998) △국무총리실 과장(1999) △제주 4 · 3사건처리지원단장(2005)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장(2006)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상훈 이력으로는 △대통령표창(1993) △녹조근정훈장(1998)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용문의 꿈 흥덕의 길〉(2011) 등이 있다. 2012년 4월 민선 6대 문경시장에 당선 된 이래 2014년 7대 시장을 거쳐 현재까지 민선 8대 시장직을 수행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환담하는 고윤환 문경 시장.



조계종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기뻐하는 고 시장.



공로패 수상후 참석자들과 총무원서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

2월 9일 조계종서 공로패…봉암사 명상마을 건립 후원 등 전통문화 전승 공로
금선대, 묘적암, 용추암 등 재임기간 10년에 걸쳐 지역의 사찰 복원 정비 진력
학창시절 김룡사 양진암서 공부하며 불교와 인연, 지금도 〈금강경〉 외울 정도
“코로나19로 현대인들에게 명상과 힐링 필요…문경 힐링도시로 변모 시킬 터”



일상 속 '마음길 걷기명상'으로 대중 위로

CM명상상담센터 '마음길 걷기명상'

매월 둘째 주 월·토 오후 2시
생각을 쉬고 번뇌에서 벗어나
명상 지도사 2급 수강생 모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CM명상상담센터는 2월 14일 부산 초읍어린이대공원에서 '마음길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개원한 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 부설 CM명상상담센터(센터장 홍순하)가 지친 대중의 평온과 휴식을 위해 일상 속에 적용시킨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대중과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마음길 걷기명상'을 진행해온 CM명상상담센터는 2월 14일 부산 초읍어린이 대공원에서 '마음길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마음길 걷기명상'에는 추운 날씨에도 청소년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대중이 참여했다.

참가대중은 일상적인 걸음과는 달리 '걸을 때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 느껴지는 감각으로 다시 주의를 기울였다. 천천히 걷고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대중들은 묵언했고 자연 속에서 나무, 새소리, 햇살, 바람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걷기명상은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다. 걷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발걸음으로 주의를 돌리는 명상법이다. 걷기명상을 통해 대중은 생각을 쉬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사장 하림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좌선 뿐 아니라 걷기 명상도 중요하게 수행하셨다. 움직임 속에서도 명상을 하는 걷기명상은 부처님의 수행공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걷는 동안 주의를 발에 두면 번뇌와 마음의 갈등이 쉬게 돼 휴식하고 평온을 얻는다. 걸으면서 하는 참선이 바로 걷기명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음길 걷기명상'은 걷기명상과 명상법 설명 및 실습 안내, 오감명상, 명상 소감 나누기로 진행됐다. 이날 걷기명상 참가자들을 보고 즉석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동참하고 싶어 따라 걷게 되었다"며 "이 근처에 살며 친구와 함께 왔는데 걷기 명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정경자 불자(71)는 "3년 전 암에 걸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치료할 때 눈 시력도 나빠지고 귀도 잘 안 들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피해왔다"며 "어제 날씨가 안 좋아 한동안 망설였지만 오늘 사람들과 걷고 마음을 나누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손은순 불자(63)는 "오늘도 조급하게 빨리 걸으려는 나 자신을 알아차렸다. 급하고 조급한 나 자신을 보면서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마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음길 걷기명상'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혹은 토요일 오후 2시~4시 30분에 진행된다. 장소는 부산 대신동 꽃마을, 다대포 몰운대, 해운대 동백섬 등 산책로를 이용해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CM명상상담센터는 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토대로 명상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명상과 상담의 통합 프로그램이며 명상지도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프로그램 효과는 마음과 몸의 이완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분노, 불안, 우울감 등의 정서 조절, 집중력 및 면역기능 향상 등이다. 그 외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대인관계 개선,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증대, 전문 지도자의 자질 향상도 돕는다.

강사는 이사장 하림 스님과 홍순하 센터장을 비롯해 명상 강사들이 동참하며 모집 정원은 주간 야간 선착순 각 20명이다. 이론과 실습과정은 총 12강이며 주간반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야간반은 오후7시 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개강은 3월 18일이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051)253-8686

관음선행장학회, 장학금 전달

학생 35명에게 총 3500만원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가 2월 10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34회 관음선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중앙승가대와 송광사 율원 및 강원 스님 15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3명, 대학원생 2명 등 총 35명에게 장학금 3500만 원을 수여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행 등 뜻있는 불자들이 함께 설립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자산 1억 원으로 설립, 운영해 오던 중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돼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은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장학금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660명에게 6억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정초기도 회향 백미 전달

백미 20kg 50포, 총 1000kg



인재불사 도량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2월 16일 경내 마당에서 이웃돕기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초기도 회향을 맞아 진행된 이번 나눔은 천불정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했으며, 백미 20kg 50포 총 1000kg을 부산 장전2동에 전달했다. 백미는 지역 내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 가족들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천불정사 범성 법사를 비롯해 김영애 천불정사 총무, 신도들이 동참했다. 범성 법사는 "춥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행복을 위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후원의 자리를 열게 되었다"며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건강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개관 특별소장전 '인연' 개막

부산 전시, 2월 16일~2월 18일
서울 전시, 2월 23일~3월 8일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2월 16일 오전 11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1층 시실리룸에서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소장전 '인연'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이사장 주석 스님과 전시를 총괄한 이도규 홍익대 교수, 김윤희 작가,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최대경 쿠무다 이사, 차재돈 쿠무다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불두(佛頭)가 대중을 맞았다. 불화장 석정 스님의 초기 달마도 작품은 오랜 세월에 거쳐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글씨 '천고임조비(天高任鳥飛)'는 선풍을 휘날리는 대장부와 같은 힘찬 기상이 느껴진다. 불교작품 50여 점을 비롯해 일반회화와 도자기 등 작가 20여 명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되는 특별 소장전 '인연'은 전통과 현대 작품이 어울려 소통하고 불교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이사장 주석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장학기금 마련 및 불교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석 스님은 "영원한 소장이란 없다. 많은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해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쿠무다를 개원하면서 문화전법이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성장과 불교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전시 작품은 주석 스님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모은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특별 소장전 '인연'은 2월 16일부터 18일 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1층 시슬리룸에서 개최되며,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어산회, 영남범음범패학과 개설

3월 9일 개강, 선착순 각 반 20명
성적우수자 전수 장학생 추천 기회



부산불교어산회(회장 성림)가 영남범음범패를 연구하고 수련해 전문성을 키우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강의를 개설한다.

모집학과는 의식의례를 수학하는 기초반 및 전문반과 작법무반이다. 기초반은 조석예불 및 불공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기를 위주로 수업하며, 전문반은 범음범패에 필요한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등 사찰행사에서 필요한 의식 및 범음범패 35곡을 지도한다. 작법무반은 바라 및 나비 등 작법무를 배울 수 있으며 불교무용단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강은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이며 기초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전문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작법무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개강 이후 2년 과정이다.

강의 교재는 구암 스님의 범음집이며 강사는 부산영산재보유단체장 성림 스님과 조교 스님들이 담당한다. 모집인원은 각 반 20명이며 강의 장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이다. 수강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상자에게는 매달 2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강생은 '부산불교어산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부산불교어산회가 회원을 모집한다. 부산불교어산회는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모체이며 한국범음범패 12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과거 통도사와 범어사의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1800년대에 발족해 1897년 범음요집 발행 및 1947년 대산집 발행 등 활동을 이어왔다. 1972년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됐으며 1993년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로 지정됐다. (051)327-509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오사, 현문 스님 초청법회

2월 10일 정초기도법회서 명상문화센터 설립계획 발표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가 2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특별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원오사 특별 초청법회는 '명상문화센터(가칭)' 설립 계획 발표와 정초기도를 맞아 법문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법회에 앞서 원오사 경내에 조성된 솔바람 명상길을 걷는 시간이 마련됐다. 명상문화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 완공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틧낙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명상과 마가스님의 자비명상과 만남

'자비명상지도사 자격과정' 2022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자비 명상은 부처님의 자비 희사(自悲喜捨)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명상에 응용한 생활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비 희사는 자애, 연민, 수희, 평등 등의 네 가지 실천 원리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함께 환희심을 느끼고,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는 명상법입니다.

■ 강의안내
· 지 도 : 마가스님, 범준스님, 이운, 유승윤
· 매주 월요일 (15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 참가비 : 1학기 45만원

■ 혜 택
· 2학기 수강 + 1박 2일 워크샵 수료시
· 등록민간자격증 (2013-1952)
· 조계종 연수교육인증과정
· 명상지도자협회 자격인증과정
· 명상지도자협회 자격인증과정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시 멈춤] 하시고
봄의 언덕 동국대로 나오세요.

무료 특강
✻ 3월 7일 월요일 2시
✻ BBS 불교방송 [그래도 괜찮아]
✻ 마가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자비명상

※무료특강에 오시는 분들은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 문의 : 02-3216-5405 사)자비명상
■ 접수 : 02-2260-3728~30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 상담 : 010-5462-1985 자비명상지도사 유승윤 교수

선착순 50명 모집

부처님 조성 비밀 의식의 전수

불복장 작법 및 점안의식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앞장서
2019년 무형문화재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로 지정된 회원스님들께서
강의를 합니다. 이에 불복장 의식 보존과 전승에 뜻을 둔 학인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2022 수계예정자 가능)

모집일정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년 3월 10일(방문, 이메일, 우편) ※songgang35@daum.net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백양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다운로드)
※http://www.baekyangsa.com
2.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매

모집인원 전수과정(1년) : 00명

수 강 료
1년(2학기 12강) 학기당 30만
교육기간 : 22년 3월 ~ 12월(1년과정)
교육장소 : 백양사 향적전
교육시간 : 2주, 4주차 월요일(오후 2시~ 4시)
강 사 진 :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
(원로의원 보륜 성오스님. 현함 도성스님)
영산재 번장엄 등 50호(청산스님)

접수 및 문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백양사 종무소
※전화 : 061-392-7502 팩스 : 061-392-2081
※학감스님 : 010-4161-5317

불복장 작법 보존회 현함 도성

광주불교계, 아이파크 붕괴 사태 아픔 보듬다

광주불교연합회 2월 16일 붕괴현장 천도재 봉행

불자 60여명 모여 천도의식
2월 7일에는 구조대원 격려
희생자가족협의회서도 참석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월 16일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조문장소에서 회원사찰 스님 30여 명과 신도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도재를 봉행했다.

광주아이파크 붕괴 사태가 수습 중인 가운데 광주불교계가 피해 아픔을 보듬는데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2월 16일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조문장소에서 회원사찰 스님 30여 명과 신도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강추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진행됐다. 천도재는 광주무형문화재 제23호인 광주영산재 이수자 월인 스님의 법고를 시작으로, 영산재의 작법무가 이어졌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인 불복장 이수자 도성 스님의 집도로 천도의식, 금강경 독송 등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또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강윤구) 회원, 서구청불자회(회장 손회숙) 회원도 참여해 마음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건설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추운 겨울 건물붕괴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시간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천도의식에 참여한 서대석 서구청장은 "추운 겨울 이렇게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지극정성으로 의식을 봉행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화정동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붕괴사태는 1월 11일 신축 중이던 1개 동 붕괴로 6명의 실종자와 매몰자가 발생했다. 약 29일 간 수색작업을 통해, 2월 8일 구조작업은 마무리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7일 구조본부를 방문해 오랜 수색작업으로 지친 500명의 공무원에게 간식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최종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회원사찰들이 참여해 천도재를 함께 봉행하게 됐다.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한 강윤구 단장도 "지난 1개월 동안 광주시민의 아픔과 걱정이 함께한 붕괴사고였다. 희생된 분들에게 장엄한 불교의식을 통해 천도의식을 봉행한 것이 감격스럽다"며 "진심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천도재 의식에 함께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희생자 가족협의회'는 사전 성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만 1년 안에 2번의 사고를 일으킨 연쇄살인 기업"이라며 "구조작업이 시작될 때와 같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목숨 앞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상봉동 여래사, 제24회 장학금 전달식

2월 16일 동봉 스님 등 참석해 전달



진주 상봉동 여래사는 2월 16일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 45명에게 각각 30만원씩 1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 상봉동 여래사(주지 동봉)는 2월 16일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지역 23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등 총 45개 학교 45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1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 여래사 인재불사는 2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급한 장학금은 2억 원에 이른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래사 주지 동봉 스님이 박영주 교육장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했다.

동봉 스님을 비롯한 여래사 대중들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계기는 여래사가 위치한 진주 상봉동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1999년 알게 되면서부터다. 학교회비를 납부하지 못해 학생들이 부모와 다투는 것을 본 스님이 동사무소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며 장학금 전달이 시작됐다. 여래사는 동사무소로 장학금을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장학금 전달이 중단, 교육청으로 기탁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학원, 설립자 만암대종사 흉상제막



한국 근대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한 만암 스님의 흉상이 정광학원 대승원에 세워졌다.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2월 11일 대승원 1층 현관에 학교 설립자 만암 스님 흉상을 조성하고, 교육사업 뜻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성된 만암 스님 흉상은 70세 때 모습으로, 흉상 제작에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광주 문빈정사, 증심사, 금선사, 나주 운흥사를 비롯해 정광학원 교직원 일동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원일 스님(前 정광학원 이사장),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석장 스님(문빈정사 주지),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함병권 정광고 교장, 이동배 정광중 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광학원은 호남 유일 종립학교로 호남불교 원력이 모인 곳"이라며 "이 터전을 만들어 주신 만암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정신에 맞게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사 석장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만암 스님은 1946년 고령인 70세의 나이에도 목포 정광정혜원에 정광중학교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도록 교육사업과 정법안장 포교에 헌신했다"며 "2021년 8월 이사회 발의로 정태전 작가에 의뢰하여, 2021년 9월 23일부터 4개월간 제작했다"고 보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흥사, 군산교도소 코로나 극복 나눔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군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스낵류 1000봉을 전달했다.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와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스낵류 1000봉을 전달했다.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2월 16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유기용 군산교도소장에게 컵라면과 스낵류 1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군산교도소를 지원하는 송월 스님이 최근 수용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과 논의하며 이뤄졌다.

송월 스님은 "모두가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원시니어클럽, 전주 농협과 업무협약

시니어 10명 농협 파견
금융범죄 사전예방 홍보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일원, 금산사 주지)서 위탁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전주농협과 2월 9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금융 업무지원을 위한 '시니어금융서포터즈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금융서포터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0개월 간 만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이 단위농협에 파견돼 서류 작성법, ATM기기 사용법,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사전예방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미디어에 취약한 농민 · 노인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생활정보 · 복지혜택 등 정보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경옥 서원시니어클럽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위농협을 찾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업무 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경제일선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 및 노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동안거 해제 맞아 기후위기 실천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가 동안거 해제를 맞아 기후 위기 대응 실천에 나섰다. 백양사는 2월 15일 대웅전에서 안거회향식을 열고 회향을 기해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수좌 일수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고불선원, 운문선원에서 정진한 대중 스님들이 참여했다.

백양사 대중은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결의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소박한 삶, 자연과 더불어 적게 소유하고 나누며 살겠다. △우리 사찰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 등 4가지 실천안을 선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

日, 스님 운영 예술가 육성학원 화제

현대판 '벽화승'인 코린 스님
1994년 바쿠가인 학원 개원
예술통한 선문화 진흥 발원
예술대학 발전시키는 것 꿈

박영빈 객원기자

예로부터 불교와 사찰은 문화와 예술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스님이 운영하는 예술가 육성학원이 일본에서 화제다. 일본 종교전문 매체인 '츄가이 일보'는 2월 2일, 나이토 코린 스님이 운영하는 '바쿠가인(驀画院)' 학원에 대해 보도했다.

사가현(滋賀県) 마이바라(米原市)에 소재한 사이엔지(西圓寺)는 14세기에 건립된 고찰로 창건 당시에는 천태종 사찰이었으나 17세기초, 명에서 온 선사인 원원융기(隱元隆琦)의 영향을 받아 선종인 황벽종으로 개종됐다. 지역에서는 관음도량으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 사찰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사이엔지의 주지 나이토 코린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일본으로 온 은원선사는 황벽선과 함께 당시 중국 최첨단 문화와 예술을 전했다"면서 "특히 선사와 동시대에 일본으로 온 일연성융(逸然性融) 스님과 같은 화승들은 일본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벽화승(驀画僧)'이라 불렸다. 뿐만 아니라 일본화 역사상 뛰어난 화가들 가운데 황벽종 사찰에서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며 황벽종과 예술의 깊은 인연을 설명했다.



현대판 '벽화승'으로 활동 중인 나이토 코린 스님.
사진출처=츄가이 일보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다는 코린 스님은 "황벽종은 은원선사 가풍으로 사찰건축부터 법복, 공양구, 법당 장엄들은 모두 명나라 때 풍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찍 예술적인 재능에 눈을 뜬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재능을 살려 미술전문대를 졸업, 출가 후에도 예술활동을 이어나갔다. 스님의 활동은 교계 내외로 인정받으면서 현대의 '벽화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1976년,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인연으로 일본에 황벽종을 전한 은원선사의 고향인 푸젠성(福建省) 사범대학교 황벽문화학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를 맡기도 했다.

스님은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황벽선의 예술활동 부흥에 뜻을 품고 1994년 예술가 육성학원인 '바쿠가인(驀画院)'을 개원했다. 코린 스님은 "바쿠가인에서는 모두가 한 커리큘럼으로 한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 원하는 다양한 장르로 창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감성을 가르칠 수는 없기에 각자의 감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방법을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바쿠가인은 미술경력이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바쿠가인은 매월 1회, 황벽종 대본산인 만푸쿠지(萬福寺) 산내암자인 토린인(東林院)의 공간을 이용해 모이고 있다. 코린 스님은 "장차 정식 예술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서 2천년 전 불교 사원 발굴

바리콧 지역, 기원전 2세기 건축 추정
초기불교 역사서 순례 중심지임 증명

파키스탄 북서부 스와트 계곡에서 약 2000년 된 불교 사원이 발굴돼 화제다.

힌두스탄타임즈 등 외신 매체는 2월 15일 "기원전 500년 전 조성된 초기 역사 시대 도시인 바리콧(Barikot)에서 기원전 2세기 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사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사원은 고타마 싯다르타 열반 후 수백 년 이내인 기원전 2~3세기경 간다라 문화권 내에 지어졌다.

이번 발굴 작업은 베네치아 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의 고고학 교수 루카 마리아 올리베리(Luca Maria Olivieri)와 국제 지중해·동양 연구 협회(ISMEO)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사원의 높이는 약 10피트(약 3m)로 불교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부도와 불단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부도와 스님들의 방, 법당, 기둥, 계단, 현관, 도로 등도 발견됐다.



최근 발굴된 불교사원.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올리베리 교수는 "인도와 그리스 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위대한 종교 유적의 발견은 이곳이 초기 불교 역사에서 숭배와 순례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당시 스와트(Swat, 파키스탄 중부의 강) 일대는 이미 불교의 성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불교 유적 외에도 동전과 보석, 조각상, 인장, 도자기 파편 등 고대 유물들도 대거 발굴했다.

조사단은 3세기 지진으로 인해 해당 사원 일대가 황폐화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바리콧은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헌에서 '바지라' 또는 '베이라'로 표기됐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인도를 침략했을 무렵인 기원전 327년경 지역 거점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로 2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밥줄'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은 1955년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도심과 성문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두 개의 다른 불교 성지를 발견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볼리우드 인기배우 단기출가 나서다

배우 가간 말릭, 태국서 삭발
불교영화 출연 계기…15일간

인도 볼리우드의 유명배우 가간말릭(Gagan Malik)이 태국에서 15일간의 단기출가에 나서 화제다. 태국 '방콕포스트'와 스리랑카 '랑카웹' 등은 2월 11일 유명배우의 불연(佛緣)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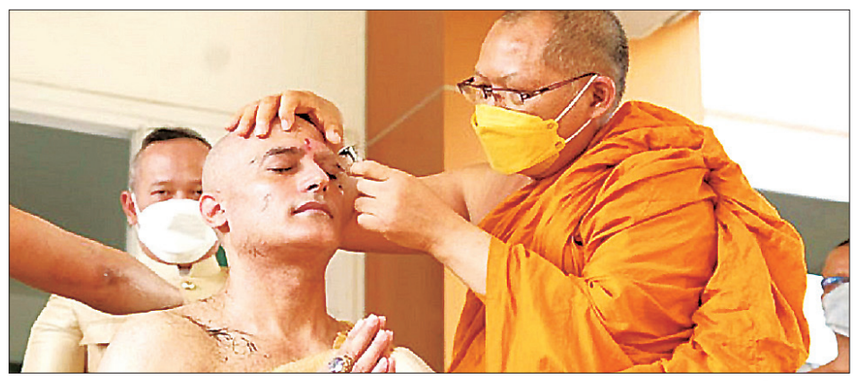
지난 2월 10일 오전, 방콕에 소재한 태국왕립사찰인 왓 탓통 사원에서 인도 영화배우 가간 말릭의 출가의식이 봉행됐다. 가간말릭은 2013년 스리랑카 공용어인 싱할라어로 제작된 불교영화인 '스리 싯다르타 고타마'에서 부처님을 연기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는 UN이 주최한 세계불교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불교와의 인연이 여기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간말릭은 이번 단기출가에 대해 "부처님 생애를 다룬 영화에 캐스팅되고 그 분을 연기하면서 영적 깨달음과 내면 평화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출가를 통해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나 자신을 더 성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간말릭은 인도 내 자체적인 전통불교교단이 미약한 점에서 태국 승단으로 단기출가를 결정한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고대 인도불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성인남성이라면 일생에 한번 통과의례로 단기출가를 거친다는 것도 이번 단기출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한때 가간말릭이 완전히 출가한 것으로 와전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왓 탓통 사원과 가간말릭 측이 공식적으로 "이번 출가는 2월 24일까지, 15일간의 단기출가"라고 공언함으로써 정리됐다. 가간말릭의 가까운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출가의식은 스님들이 머리에 향탕수를 부어주고 삭발을 진행한 후 가사를 전달해 수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수계식 후 가간말릭은 "배우로서의 경력을 통해 인도인들이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차후 인도에서 진정한 불교도들을 육성하고 불교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콕의 왓 타통 사원에서 출가의식을 봉행하는 가간말릭.
사진출처=랑카 웹

링 린포체 "티베트 정신 파괴한 중국"

티베트 문화·불교 탄압 중국 일침
스리랑카 종정스님도 지지 성명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의 전생 스승 링 린포체(Ling Rinpoche)가 티베트 문화와 불교를 탄압하는 중국에 일침을 가했다.〈사진〉

링 린포체는 2월 11일 스리랑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자신들(티베트)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불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티베트인들에게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중국을 질책했다.

링 린포체는 "달라이 라마 성전을 비롯해 불교 정체성과 문화, 수많은 사원, 역사와 종교적 가치가 있는 불상들에 대한 파괴가 대표적"이라며 "5000여 개 사원 중에 오직 5개만 남았다. 나머지는 중국 침략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티베트 농민과 민간인들이 중국군에 의해 학살됐고, 감옥에 갇혀 굶어 죽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스리랑카의 종정 스님에 해당하는 마하나야께 대로(Maha nayake Thero) 스님도 "티베트는 독립국가이며, 국가 지도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불교 스님이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옹호했다. 또 그는 달라이 라마와 8만여 명 추종자들의 망명을 허가한 인도 정부에 감사함을 표하는 한편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불교와 불교공동체를 파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스리랑카에서 아비담마에 관한 불교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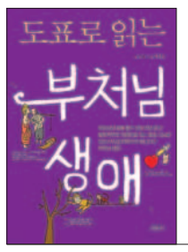
불교예술대학
범패·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대령·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읽기 쉬운 도표 속 부처님 생애



도표로읽는부처님생애
글 묘장/그림 배종훈
민족사 펴냄/1만 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생애를 그림과 표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더욱더 쉽게 불법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 구호 전문가로 유명한 묘장 스님(학도암 주지,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이 최근 펴낸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바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 부처님 생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처님 생애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생생히 담겨져 불자들에겐 경전만큼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이 책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님 삶을 화두 삼아 정진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묘장 스님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집필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몇 년 전 동일본과 네팔 대지진 당시 재난현장서 구호활동을 했다. 그때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전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면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의 안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분들 또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의 안온함을 느꼈다는 묘장 스님은 당신처럼 사람들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 같은 마음을 느끼길 첫손에 꼽았다.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로 생사의 재난 현장서 직접 구호활동하는 전문가의 체험 속에서 생긴 바람이기에 책 한 구절마다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부처님 생애는 전생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화현의 형태는 달랐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동일했습니다. 자리이타, 법을 구하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신 부처님의 전생은 시공을 초월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라고 부처님 생애의 중요성을 전한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저자는 특히 이 책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 실천을 강조한다. 사실 최근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생략하고, 역사적 사실과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경향이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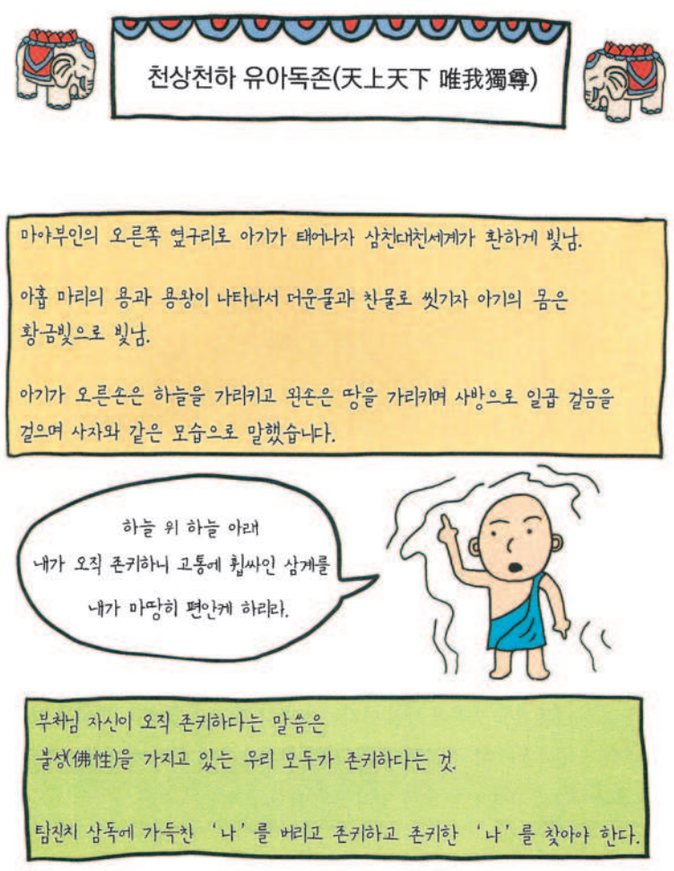
저자인 묘장 스님이 환하게 웃고 있다.

스님이 이 책에서 '2장 전생의 지혜와 복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까닭도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 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삼세인과경 · 팔관재경〉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 출판해 법보시 운동을 펼치면서 "생각은 인과(因果) 속에 행동은 계율(戒律)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와 궤를 같이 하여 이 책에서도 인과를 도외시함으로써 벌어진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치관의 혼돈시대, 충돌시대라 할 수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라 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탄생게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살기를 발원하고 있다.

저자는 "부처님 탄생게는 온 우주를 울리는 일대 선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온 우주에서 나 홀로 존귀하다), 수많은 생명들과 천신들의 스승이자 자비의 아버지이신 부처님의 존귀함은 물론이고 불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는 말씀, '삼계개고 아당안지(삼계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가 편안케 하리라)'라는 자비 실천의 의지가 함께 녹아 있는 탄생게만 가슴에 새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써내려간 부처님 생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비중을 실은 까닭은
부처님 삶을 화두 삼아 정진하며 집필해서다
쉽게 읽히는 일상어와 트렌디한 카툰도 '눈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온 우주서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을 가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뒷 구절인 삼계개고 아당안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스님은 삼계개고 아당안지에 더욱 방점을 찍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본 면목은 고통스러운 중생을 편안하게 구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중계동 학도암 주지로서 전법하면서 유튜브서 '묘장 스님의 상기티칼리지'를 운영하고, 불교 복지 사업에 힘쓰고, 국제 구호 협력 기구를 설립하면서 '더 프라미스(약속)'라고 명명한 것도 '삼계개고 아당안지'라는 부처님과의 약속, 그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탄생게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자리서 구현하겠다는 바람으로 이름 지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직접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덮친 재난 현장을 찾아 진두지휘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치유해 준 것도 스스로 약속한 '부처님처럼 살기'의 한 단면이다.

"독자에게 잘 읽히지 않는 책은 종이의 원료인 나무에게도 미안한 일이기에 한번 책장을 열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일상 용어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스님의 말처럼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이다.

한편 대소승을 막론하고 부처님 일대기가 담긴 경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 "부처님의 생애가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곁에 가까이 살아 계시던 분의 생생한 이야기로 느껴지길 기대하면서 썼다."는 스님의 말처럼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과 한결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배종훈 작가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카툰과 도표 또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해 준다.

▲저자 **묘장 스님**은?

1991년 직지사서 웅산 스님을 은사로 녹원 대종사를 계사로 득도했다. 불교계 사회복지와 국제 긴급구호 전문가로 부처님의 자비를 지구촌 곳곳에 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도리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BTN '묘장 스님의 생각'을 진행하였다. 현재 학도암 주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집행위원,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긴급 구호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유튜브 묘장 스님의 상기티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역저로 〈삼세인과경 · 팔관재경〉이 있다. 아이티 대지진 조계종 의료봉사단 단장,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단장, 태국 대홍수 긴급구호단장, 네팔 대지진 합동지원단 단장, 포항 지진 긴급구호단장, 네팔 홍수 긴급구호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재난 구호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삶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진 중이다.

▲그림 **배종훈 작가**는?

2003년 '월간 불광' 연재를 시작으로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등의 월간 불교 잡지와 '현대불교신문' 등 교계 언론사에 삽화와 카툰을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다. 또한 여행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연꽃 향기로 오신 묘엄 스님〉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유럽을 그리다〉 〈행복한 명상카툰〉 〈내 마음의 죽비소리〉 〈자네 밥은 먹었는가〉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등이 있다. 2010년 불일미술관, 개인전(맑은 생각, 카툰 선을 만나다),

2014년 스페이스 선+, 2인전(마음이 추울 때 카투니카노 한잔 어때요), 2014년 불교박람회 & 붓다아트 페스티벌 기획 초대전, 2016년 스페이스 선 + 갤러리개인초대전 등의 선카툰전시회를 가졌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싯다르타 태자는 위슈와미뜨라와 삽바밋따로부터 베다와 베다의 부속학문을 배웠고 바라문들의 사상과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64개의 문자는 물론 수학과 논리학까지 공부한 태자는 승마와 창술, 궁술 등 29종의 군사학을 익힙니다. 비범했던 태자는 모든 학문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배움은 태자의 명석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지혜와 올곧은 품성을 두루 겸비한 전륜성왕의 길을 가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p.52〉

"마라를 물리친 싯다르타가 말을 타고 나아갈 때 모든 천신과 브라만들은 주위를 호위했습니다. 6만 개의 횃불과 향기로운 꽃과 백단향 가루, 야크의 꼬리털로 만든 부채, 여러 가지 깃발을 들고 싯다르타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악기로 노래를 부르며 싯다르타의 앞날을 밝혀 주었습니다." 〈p.76〉

"보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를 아는 숙명통(宿命通)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업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밤중에 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중생계의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안통(天眼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과 더러움이 사라지는 누진통(漏盡通)을 얻게 됩니다. 순식간에 깨달음은 이뤄졌습니다. 새벽 시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쯤 깨달음은 완성되었습니다." 〈p.106〉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몸짓언어로 피어난 '우담바라'

김복희무용단 '우담바라' 공연
3월 5~6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표레퍼토리와 '우담바라' 공연
목각불상 등 다양한 오브제 등장
인간존재의 소중함 표현한 안무
마지막장 환희의 군무 공연 백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무용가인 김복희 교수의 안무 '우담바라'

춤에서의 현대성과 현대춤에서의 한국성을 추구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이끌어온 현대무용가 김복희의 김복희무용단이 3월 5일부터 6일까지(오후 4시, 2회 공연)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우담바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안무가 김복희의 50년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한국무용사에 한 획을 그었던 대표 레퍼토리와 남지심 동명 소설을 원전으로 한 '우담바라'를 선보인다. 한국적이면서 불교적인 표현주의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온 안무가 김복희는 이번 공연 역시 그녀만의 연출법을 통해 춤의 본질과 극적인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지심의 소설 〈우담바라〉는 1987년 제1권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제4권이 출간되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다.

1부 'HISTORY'에서는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삶꽃 바람꽃 Ⅳ-신부', '거미집제례', '삶꽃 바람꽃 Ⅴ-눈길'을 선보인다.

'삶꽃 바람꽃 Ⅳ-신부(안무 김복희, 출연 김복희 손관중)'는 2006년 초연한 작품으로, 서정주의 동명 시를 원전으로 하여 '정조(貞操)와 오해와 기다림'이라는 한국적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첫날밤의 해프닝으로 신랑이 신부를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신부를 떠난다. 40년이 지나 신부네 집 앞을 지나던 신랑이 신부의 방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채 첫날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어루만지니 신부는 한 줌 재가 되어 스러진다.

'거미집제례(안무 김복희, 출연 정혜진 김은정, 최재혁, 강동희)'는 2016년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김복희만의 독특한 움직임과 이야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람들이 거미집에 걸린 생명의 흔적들이 발하는 회한을 바라보며 그들을 진혼한다. 전생의 땅 냄새를 맡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눈을 감더라도 마음은 감지 말라고, 홀로가 아니라 함께 통곡해주는 이가 있다고, 이승에서 만났던 그 모두가 또, 역시 그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

'삶꽃 바람꽃 Ⅴ-눈길(안무 김복희, 출연 윤미라, 권민찬)'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을 원전으로 한 작품으로, 소품들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현대무용'의 이미지와 추구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솟는 외로움을 무용으로 그려낸다.

2부에서는 지난해 30주년 기념공연에서 선보였던 '우담바라(안무 김복희)'를 공연한다. 한국적 현대무용의 한국성을 보여주는 작품 '우담바라'는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골라 그 장면들을 강조해 여러 장의 그림처럼 무대를 꾸민다.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만나고 부딪힘으로써 상징적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모든 인간은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인형, 목각불상, 불교의 수인 등 다양한 상징적 오브제들과 함께 춤으로 그려낸다. 각 인물을 표현한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마지막 장의 클라맥스에서 등장하는 군무는 관객을 압도한다. 특히 휘몰아치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속에서 원형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환희의 군무와 불상을 천에 담아 띄워 올리고 일렬로 내려앉는 엔딩은 공연의 백미다.

'우담바라'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됐다. 첫 장면 '삶의 늪'에서는 인생의 늪에서 살아가는 채련, 동미, 한태서 등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그린다. 두 번째 장면 '타들어 가는 향(香)'에서는 남의 가문의 피를 지키기 위한 이씨 할머니를 중심으로 융, 당, 봉두 등의 이미지를 그린다. 세 번째 장면 '가슴 속 가슴'에서는 삶의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도 순결한 사랑이 싹트고, 지효를 사랑하는 봉두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목각의 모양을 통해 사랑과 이해의 화합을 그린다. 네 번째 장면 '울림'에서는 화합과 사랑, 평화 그리고 윤회의 의미가 담긴 군무가 펼쳐진다.

현대무용가 김복희는 1971년 한국 최초의 개인 무용단을 창단해 '법열의 시' 등을 발표한 후 줄곧 한국적 현대무용을 추구해오고 있다. 1975년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김복희무용단'을 통해 열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국내뿐 아니라 남북미, 유럽, 아시아 등 무려 23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했다. 1986년 한국현대춤협회를 창단, 한국의 창작무용가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의 창설을 주도했다.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 명예교수이다.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우담바라' 등 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2014년 옥저근정훈장 등 다수 수상했다. (02)2263-4680.

화엄사,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개최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촬영 · 접수
개회식 3월 19일 홍매화나무 아래서
전문작가 부문 신설, 매년 개최키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가 2022 홍매화 · 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화엄사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를 연중행사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화엄의 역사 공간에서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콘테스트에서는 전문 사진작가 부문을 신설했다. 촬영 기간과 접수일은 3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화엄사 홈페이지 접수창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프로 작가들의 경우 DSLR, DSLT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지난해 출품작.

출품은 개인당 1작품이다. 출품된 작품의 소유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이 공동으로 갖는다. 수상작 중 선택된 작품은 화엄사와 구례군 홍보책자 및 2023년 캘린더에 게재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엄사 일주문에서 발열측정, Q체크 혹은 안심콜을 한 후 입장하게 되고 화엄사 신도회의 안내를 받게 된다. 촬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촬영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한다.

전문 사진작가 부문 시상내역은 △총무원장상 1명(300만원), △포교원장상 1명(200만원), △교육원장상 1명(200만원), △교구장스님상 1명(100만원)이며, 상장과 부상, 4인용 템플스테이 1박2일(4명) 체험권이 주어진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 시상내역은 △교구장스님상 1명 △부주지스님상 1명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상 △구례군체육회장상 △화엄사 신도회상이며, 상장과 부상이 함께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1)783-7600. 박재완 기자



'승무' 맥 이어가는 49일간의 이야기

이철진 '2022년 49일간의 승무 이야기'
3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성균소극장

승무 보유자 이애주 작고로 전승 위기
승무 미래 준비하고 전승 염원의 무대

한국 전통춤 '승무'의 맥을 잇고 있는 이철진 〈사진〉이 매년 이어온 공연 '승무 이야기'를 올해도 이어간다. 이철진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철진의 '승무 이야기'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철진은 "올해는 한국의 전통춤 승무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맥이 끊길 위기에 있는 한영숙류 승무의 전승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2021년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였던 이애주 보유자가 작고함으로써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로 이어진 승무의 계보를 잇는 보유자가 없어 승무의 계보 전승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애주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무 전수곡 40분 전판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춤꾼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공연의 제목을 '49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정한 것은 2021년 작고한 이애주 영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49일의 의미를 부여해 영가를 위로하고 승무의 미래를 준비하기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철진은 "이제 전통춤은 문화재 1세대와 2세대를 거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춤인 승무가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공연이 많은 대중에게 승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일반 관객을 비롯해 전공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연 시간은 주중 오후 7시 30분, 주말은 오후 4시다. (010)3826-4446. 박재완 기자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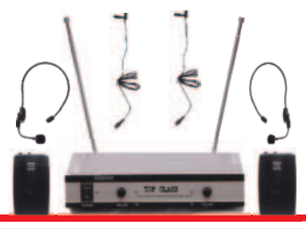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근현대 선지식, 불교생태학…연구 주제 다채

동국대 2022년 상반기 박사학위 논문은

심층생태학 · 불교 상관성 고찰
백용성 · 백성욱 등 사상 조명
경기 화승 화풍들 비교 분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월 17일 중강당에서 '2022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46명, 석사 665명, 박사 10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자 중 불교학과 불교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14명으로 논문 주제로는 근현대 선지식부터 전통교학, 불교생태학까지 다양했다.

자헌 스님(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온(蘊), 심소(心所), 자증(自證)으로서의 수(受)'는 오온의 두 번째이자 십이연기의 7번째 영역인 '수(受)'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다뤘다. 자헌 스님은 논문에서 수의 원전어인 베디나(vedanā)나의 번역 문제를 조명하고 초기불교문헌에서 다루는 수의 내용을 통해 수의 정의와 특징을 밝히고, 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자헌 스님은 "불교의 수는 무엇보다 무상성과 연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자칫 자아나 실재라는 개념이 수로 인해 확고히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수는 인식수단이자 인식 자체이다.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자증되는 수일 때 수행을 통한 수습의 단계는 그 의미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병관(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심층생태학의 문제와 불교생태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병관은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심층생태운동을 조명하고 불교철학과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태학적 삶의 실천방안을 불교의 보살사상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봉종밀의 화엄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두진(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중국불교 화엄사상가인 규봉종밀(780~841)의 화엄선의 성립과 전개, 영향들을 분석했다. 그는 종밀의 화엄선 교학 연구가 유교와 도가로 확장됐던 점을 특징으로 꼽았으며 이는 송대(宋代) 유학과 도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홍나연(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원광 법사 진영과 그 복원 연구'를 통해 원광 법사의 행적을 분석하고 도상 창작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 그는 원광법사 진영 복원이 원광이 중국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 법을 펼쳤던 50~60대 연령으로 법사의 상을 출조했으며, 복식 · 지물 · 대좌의 도상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폈다.

'청소년을 위한 참나 만나기 명상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은정(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명상수행코칭전공)은 정서와 인지를 조율해 고통의 근원인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자아초월 프로그램(Non-Dual Therapy, NDT)'을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했다.

무각 스님(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은 '환성지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 후기 고승인 환성지안(1664~1729)은 청허휴정의 5대손으로 근현대 선풍을 진작시켜 현대로 선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무각 스님은 환성지안의 선사상과 실천 수행의 면모를 살피고, 환성지안의 한국선종사적 위치를 부각시켰다. 스님은 "호암체정과 함월해원, 설송연초, 연담유일, 백파긍선과 초의의순 등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환성지안의 제자들로 인해 한국불교 정통성 확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무호 백성욱 연구—금강경 신행공동체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희종(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은 스님이자 불교학자이며, 정치인이자 교육자였던 백성욱(1897~1981)의 행적 중 말년에 이뤄진 〈금강경〉 신행공동체 활동에 대해 조명했다. 1962년 결성돼 1981년 백성욱이 입적하기까지 활동한 〈금강경〉 신행공동체에 대해 김희종은 "〈금강경〉을 통한 정법으로서의 입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며, 짧은 기간동안 근본적인 변화로 새 불자로 거듭나게 했다. 이는 사회를 밝게 인도하는 진정한 불교신행공동체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정선(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에 관한 연구'는 3.1운동 민족대표이자 근대불교 선각자였던 백용성(1864~1940) 선사가 보여준 참선포교 전반을 문서 · 수행실천 · 대중법회 분야에 걸쳐 조명했다. 허정선은 "백용성 선사의 참선포교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백용성 선사가 근대 한국사회에 '참선'이라는 용어를 도심에서 최초로 사용한 내용과 도심지 포교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한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선사가 근대기에 추진한 모든 활동의 저변에는 참선에 바탕을 둔 그의 높은 수행력 및 선사상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명본 스님은 '〈불설별미후경〉의 연원과 변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처님의 본생담 중 하나인 〈불설별미후경〉은 한국 전래동화이자 판소리인 토끼전, 수궁가의 원전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용됐는지를 살폈다.

스님은 "원천적인 소재로서 '원숭이와 악어 이야기'가 변용된 교리의 측면은 바른 견해인 정견(正見)에 포괄되고, 실천의 측면은 바른 실천인 정행(正行)에 포괄된다.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이라고 밝혔다.

'대인상(Mahāpuriṣa-lakkhaṇa) 개념의 성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원주(동국대 일반대학원 인도철학과)는 초기경전 속에 수록된 붓다의 신체에 대한 설명인 '32대인상'을 자세히 언급한 〈락카나숫따〉를 살피고, 이 같은 대인상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고찰했다.

불교미술 관련해서는 3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권보경(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신라 하대 · 고려 철불 연구'를 통해 신라 하대와 고려 철불의 특징을 살피고, 어떻게 감소됐는지도 분석했다.

권지은(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은 '불화의 초본 제작과 동초 방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조선 후기 초본의 제작 주체와 18세기 불교회화에서 출현한 출초화승과 그들이 제작한 불화의 화기를 통해서 작품 활동 연혁과 특징을 살폈다.

'18세기 경기 화승과 불화의 화풍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최학은 18세기 경기 지역에서 나타난 경기 수화승 화풍을 그들이 남긴 불화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의겸의 화풍이 각종에게 전해지고 이후 설훈을 통해 새로운 화풍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

팔만대장경, 한국 대표 홍보 문화유산 선정

문화재청, 2월16일 결과 발표
한복 · 경복궁 등과 함께 선정
국내외서 정부가 홍보진행해


한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한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한국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한복 · 경복궁 · 백제역사유적지구 · 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을 선정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불교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선정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재조대장경을 지칭한다. 경판의 수가 8만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일컫고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재조대장경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 팔만대장경은 13세기 중반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기원하고자 국가가 주도해 조성했다. 불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향유되던 중세 동아시아에서 대장경의 조성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기술을 상징했다. 고려의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고려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2007년 등재)으로,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995년 등재)으로 등재돼 있다.

문화재청은 선정된 5개 대표 문화유산에 대해 세부 홍보계획을 수립해 올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발적으로 '입소문 홍보(Viral Marketing)'가 돼 세계인의 의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대두되는 주변국의 문화공정으로부터 우리 문화를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야외 · 법당 예식 동일… 변화해야 합니다"

'예식의궤' 펴낸 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보통 통청, 소청해 권공하는 공양합니다. 이는 특정 성현이 부재할 때 '야외설단 법회'에서 행하는 방식이죠. 법당에는 이미 불보살과 신중들이 봉안돼 있습니다. 법당의 봉안 삼보에 대한 예경에는 소청이나 헌좌와 같은 의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됐으나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법당 예식을 바로 잡기 위해 〈예식의궤〉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사진〉은 의례집 〈예식의궤〉 발간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야외설단과 법당의 의례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이번에 발간한 〈예식의궤〉는 법당 내 의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예식의궤〉는 일러두기를 시작으로 아침저녁 예식절차, 상단 중단 권공, 대령 관욕, 시식, 영혼(迎魂)의식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평범한 의례집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변재(遍在) 삼보가 아닌 봉안 삼보에 대한 예경에는 소청이나 헌좌와 같은 의례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맞춰 의식을 변화해 기술했다. 대령과 관욕이 단순한 순차의식이 아님을 밝혀놓았고, 반혼의 경우도 사찰의 스님이 입적해서 사찰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닌 재가 망자가 사찰에 올 때는 전통의 영혼(迎魂)식으로 봉행해야 함을 제시했다.

진언의 표기를 〈진언집〉(1800)의 표기를 따르려고 노력한 것도 특징이다. 정오 스님에 따르면 〈진언집〉의 표기는 구개음화나 모음조화 이전의 방식으로 표기돼 있어 원음에 비교적 가깝다. 스님이 발간한 〈예식의궤〉는 이를 과감히 수용했다. 그래서 〈예식의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무아미타불을 '나모아미타불'로 적었다.

우리말 번역 의식을 우선하고 원문 의식을 부록으로 편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비록 예경의식만이라도 우리말 번역으로 편제하자는 스님의 노력이다. 이 역시 종단에서 표준 번역이라고 밝힌 것만 수용했다.

정오 스님은 향후 BBS불교방송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바른 불교의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불국사 성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오 스님은 동주 원명 스님에게 범패를 이수했다. 현재 스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 이수자이며 조계종 한글의례지도위원, 경북 예천 서악사 주지로 봉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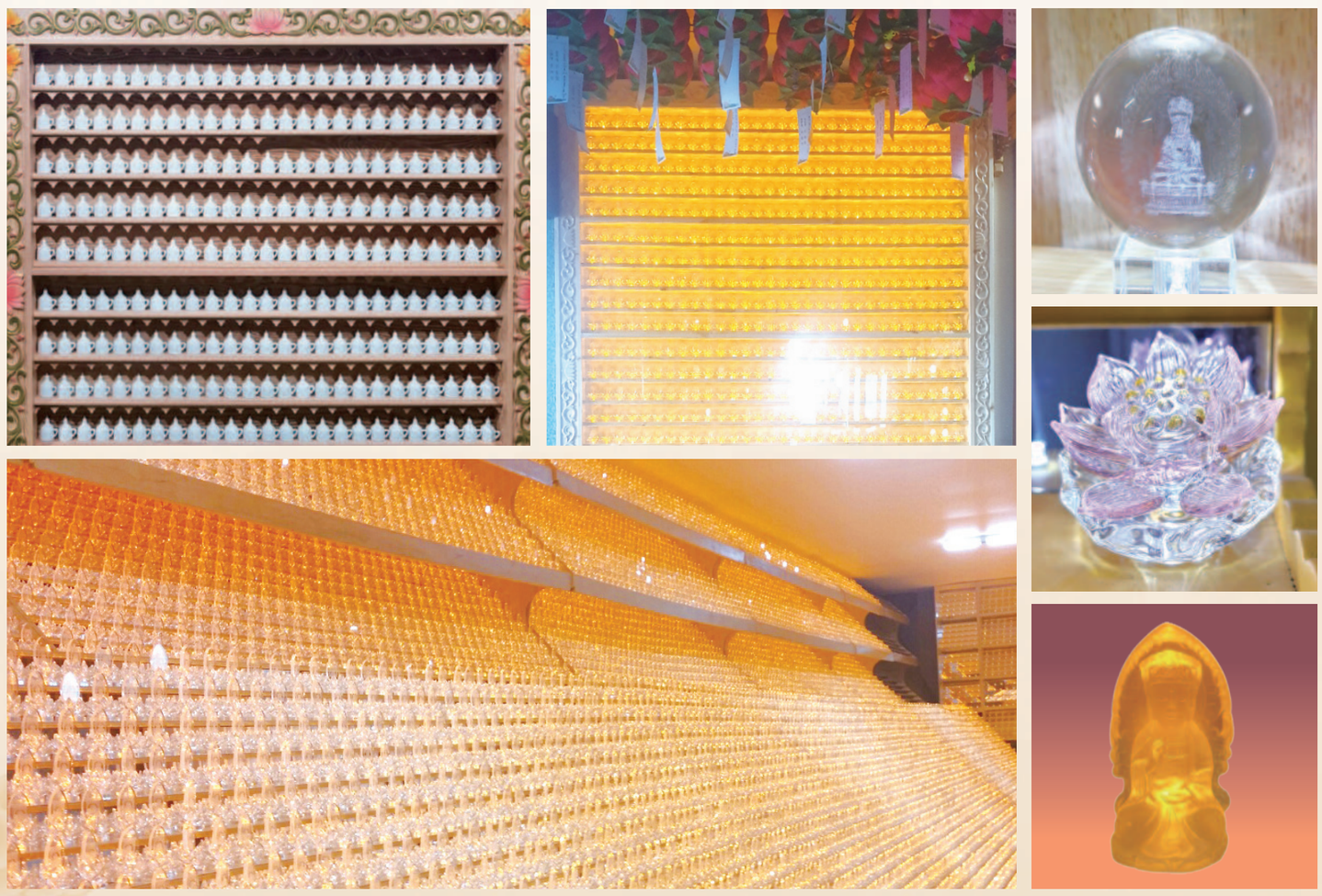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4

▶ 55회 예고
특사는 아쇼까에게 빠딸리뿌뜨라 상황을 보고한다. 이복형 수시마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쇼까는 왕위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특별휴가를 받았으니 그곳에 갈 뿐이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 아쇼까에게 특별휴가 주다

다르마 왕비는 꼭두새벽에 강가강을 나갔다. 머리가 무거운 탓에 한 달 보름 만이었다. 왕족들이 기도하는 가트에는 듬성듬성 작은 천막들이 설치돼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먼저 차가운 강물에 들어갔다. 락슈미띳사도 토기항아리를 들고 뒤따랐다. 들판 너머에서 해가 솟구치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강 저쪽에는 이미 다른 왕족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다르마 왕비는 강물이 무릎까지만 차오르는 얕은 곳에 섰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강물을 한 번 얼굴에 끼얹고는 기도를 시작했다. 빈두사라왕의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 발원을 먼저 했다. 그리고 손자 꾸날라와 아들 비가따쇼까가 무탈하게 자라기를 빌었다. 마지막으로는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기도였다. 아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였는데, 다르마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동쪽 들판에 날빛이 번졌다. 들판의 수수밭과 목화밭이 푸르스름하게 드러났다. 붉은 놀이 사라지면서 햇살이 부챗살처럼 퍼졌다. 핏덩이 같은 해가 머리를 내밀자마자 들판은 순식간에 밝아졌다. 다르마 왕비는 눈이 부시어 잠시 눈을 감았다.

목욕하러 온 성민들이 강물에 첨벙첨벙 몸을 담갔다. 다르마 왕비는 락슈미띳사가 건네준 토기항아리에 강물을 떠서 머리에 부었다. 푸른 비단 사리가 강물에 젖었다. 다르마 왕비는 다시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번에는 아쇼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왕비님,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오늘 여기 오지 못합니다."

"비가따쇼까도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다르마 왕비가 실망하여 비가따쇼까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다.

"아닙니다, 왕비님. 왕자님은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왕궁으로 가실 것입니다."

"열 살이 되더니 내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왕자별궁에 계시던 왕자님은 어제 오후까지도 강가강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대왕님께서 부르신다는 명을 받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마 왕비는 원망하는 말투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꾸날라도 강가강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꾸날라 왕세손님은 탁실라에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꾸날라가 수시마를 따라서 탁실라로 간 것은 빈두사라왕의 지시 때문이었다. 꾸날라가 열한 살이 됐을 때 빈두사라왕은 탁실라 부왕 수시마 곁에 있으라고 보냈던 것이다.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낸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가 탁실라에 가 있으면 아쇼까를 옹호하는 대신들을 견제하는데 용이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꾸날라는 볼모로 가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수상 칼라따까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심복인 특사가 꾸날라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특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때 수시마를 설득해 꾸날라만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꾸날라의 취미는 빈두사라왕이 생일선물로 준 현악기를 들고 다니며 노래 부르는 것이었다. 꾸날라는 빠딸리뿌뜨라에 있을 때도 왕궁 어디에서나 궁중정원의 새처럼 곧잘 구슬프게 노래하곤 했으므로 빈두사라왕은 "아, 꾸날라가 노래하는 군!" 하고 그의 목소리를 바로 기억했다.



아침 일찍, 비가따쇼까는 왕자별궁으로 찾아온 친위대장을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빈두사라왕은 비가따쇼까를 예고없이 부르곤 했으므로 어린 비가따쇼까는 놀라지 않았다.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수시마와 비가따쇼까를 편애했다. 아쇼까처럼 경계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르마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자신의 날카로운 눈매를 빼닮은 비가따쇼까에게 저절로 마음이 갔다. 빈두사라왕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 비가따쇼까 나이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접견실에서 비가따쇼까를 맞았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비가따쇼까야, 갑자기 너를 보고 싶어서 불렀다."

"대왕님, 부모님이 아들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호, 그렇지."

"오늘은 어머님과 강가강에 목욕하러 가는 날인데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취소했습니다."

"너는 어찌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하느냐."

"저는 대왕님께서 즐거우시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너를 보니 또 수시마가 생각나는구나. 수시마 형같이 착한 너를 보니 말이다."

비가따쇼까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대왕님, 저는 탁실라를 통치하시는 수시마 형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님은 부왕이시고 저는 이제 검술과 승마를 훈련하기 시작한 왕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왕자라면 누구나 검술과 승마를 열 살 때부터 시작하지."

빈두사라왕이 탁자 옆에 세워둔 긴 칼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 칼을 너에게 주려고 불렀다. 내가 정복전쟁을 치를 때 사용했던 칼이다. 이제는 피를 잊어버린 칼이다."

비가따쇼까는 감격해서 접견실 바닥에 엎드렸다.

"칼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마우리아국을 위해 너무 많은 피를 묻힌 칼이다. 그러나 마우리아국의 평화를 가져온 칼이기도 하다. 그러니 칼을 보면서 마우리아국을 늘 생각하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칼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라는 명문이 마케도니아어로 쓰여 있었다. 칼은 아쇼까의 할아버지 짠드라굽따 선왕이 알렉산더 동방원정군을 물리칠 때 노획한 전리품이었다. 알렉산더에게 정의란 곧 통치행위였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똑같은 칼을 두 자루 가지고 있었는데, 수시마에게 먼저 한 개를 주고 남은 칼을 비가따쇼까에게 선물한 셈이었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너는 수시마 형을 도와서 마우리아국의 영광을 이어가도록 하거라."

"어머님께서 동생은 형님들을 도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모른다. 나는 내 목숨이 이제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비가따쇼까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 빈두사라왕의 목숨도 목숨이지만 어머니 다르마 왕비의 소원이 이뤄지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기회가 되면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반드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비가따쇼까는 솔직하게 말했다.

"대왕님, 저는 어머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왕님께서 수시마 형님과 저를 보고 싶어 하시듯 어머님께서는 아쇼까 형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빈두사라왕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비가따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님은 저와 아쇼까 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서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형님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쇼까 형님과 제가 만나는 것뿐입니다."

"너도 아쇼까가 보고 싶다는 말이냐?"

"보고 싶습니다. 웃자인과 탁실라 반란을 제압하셨다는 형님을 보고 싶습니다."

"음..."

빈두사라왕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다.

"어머님 만류로 무산되었습니다만 제가 웃자인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네가 가는 것은 위험하지. 음..."

빈두사라왕이 도리질을 하면서 한 번 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비가따쇼까가 또 말했다.

"어머님은 대왕님께서 아쇼까 형님에게 특별휴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수없이 들어왔다. 칼라따까 대신도 말해왔고."

"수시마 형님도 작년에 특별휴가를 받아 오셨으니 아쇼까 형님도 그러셔야 합니다."

빈두사라왕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수시마와 아쇼까를 차별하지 말라는 비가따쇼까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네 뜻이 정말 그러하느냐?"

"아쇼까 형님이 오신다면 어머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빠진 건강이 좋아지실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비가따쇼까야, 네 뜻대로 하마. 당장 특사를 웃자인으로 보내 아쇼까 부왕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

왕궁을 나온 비가따쇼까는 급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강가강에서 막 돌아온 다르마 왕비는 정원을 산책하며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어머님, 대왕님께서 형님께 특별휴가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이냐?"

다르마 왕비는 비가따쇼까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 내어 흐느꼈다. 락슈미띳사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몇 년 동안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일이 성취된 것 같아서였다.

"오, 강가강에 계신 시바 신께서 들어주셨구나."

"예, 어머님. 강가강에 정말로 시바 신이 사시나 봐요."

"그런데 비가따쇼까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인가 보다."

"무슨 일이죠?"

"이별은 슬픈 거란다. 담마팔 사문께서 떠나겠다고 하시는구나."

"사문께서는 저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거든요. 산스끄리뜨어나 별자리 등을 이미 다 배웠어요. 검술이나 승마는 친위대장님께서, 라다굽따 제관님께서는 점술을 가르쳐줄 것이고요."

"산치 절로 다시 가신다고 하는구나."

"다른 왕자들의 스승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늙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냥 붙들 수는 없지 뭐냐."

"이별은 슬픈 거지만 어쩔 수 없군요."

"그래, 이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별을 하면서 사는 거란다."

며칠 후, 담마팔은 빈두사라왕의 명을 받고 웃자인으로 가는 특사 일행과 함께 떠났다. 담마팔 사문이 산치 절로 돌아오기를 바란 사람은 상인 수장 데바가 아니라 데바 부인이었다. 데바 부인의 편지를 받은 담마팔 사문은 비가따쇼까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었으므로 즉시 허락했던 것이다. 산치 절에 머물던 비베깐난다 사문이 숫빠라까 뿐다라마 주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탁실라에 가 있는 심복에게 젊고 날랜 군사를 보냈다. 말고삐를 쥔 군사는 탁실라 성민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라는 칼라따까의 밀서를 가지고 달렸다. 수시마의 발을 탁실라에 묶어 두려는 모사였다.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면 빈두사라왕이 명을 내리더라도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❹ 석도안(釋道安)



▶ 한줄 요약
'본무종'의 대표자로서 반야사상을 널리 펼쳤으며, 중국불교의 틀을 마련한 고승, 석도안

반야사상 펼치며 중국불교 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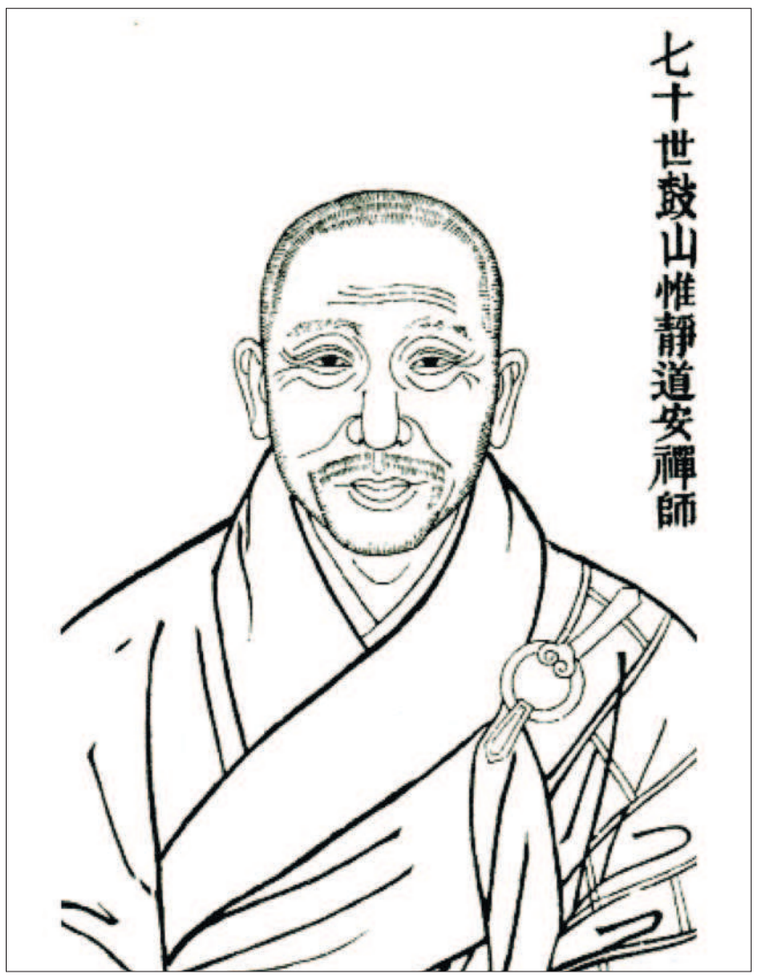
중국불교는 동한(東漢)시기에 역경(譯經)이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고, 위 · 촉 · 오의 삼국으로 분열된 시기에 서서히 그 틀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삼국 가운데 중국문화의 핵심지역인 중원(中原)을 차지한 조위에서는 반야학을 원용한 '현학(玄學)'을 제창하였으며, 현학으로부터 중국은 서구 근세의 '르네상스'와 비견될 정도의 인문학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정식으로 대계(大戒)를 받은 주사행(朱士行)이 또한 최초로 서역으로 구법하여 〈방광반야경〉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수많은 서역 승려들이 반야부 계통의 대승경전을 가져와 역출하여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위는 사마의(司馬懿)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들의 쿠데타인 '고평릉(高平陵) 사변(249)'으로 인하여 실권을 빼앗겨 265년에 망하게 되어 서진(西晋)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촉(蜀)을 멸하고(263), 오(吳)를 멸하여(280),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서진 시기는 정치적으로 조위에서 활동하던 고위관직에 있었던 현학가들을 모두 참살하는 숙청을 단행하여 사서(史書)에 "천하에 연고가 많아 뛰어난 선비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자가 적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당시의 현학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지식인들은 사마 정권을 비판하며 은둔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를 후대에 이른바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전설화시켰다. 현학은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유교의 명교(名敎)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禮)를 초월하여 자연(自然)에 맡긴다는 종정월례(縱情越禮)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조위를 멸한 보수 세력들의 사상적 근거가 유교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현학의 사상적 흐름을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현학은 중국 사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적인 교의(敎義)는 물질의 변화와 정신의 작용에 대한 관계를 분석, 불교학적인 용어로 '석공(析空)'하면서 전개되는데, 일반인들이 '생멸(生滅)'로 보는 현상을 '유무(有無)'로 전환시킨다. 이 '유무'는 결국 '진속(眞俗)'의 문제로 나아가고, 그에 따라 '생멸', '생사(生死)'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르는 과정을 시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야'에 이르면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즉(卽)'의 관계임을 논증하면서 '유무쌍견(有無雙遣)', '진속불이(眞俗不二)', 제법(諸法)의 불가득(不可得)을 제창하고, 최종적으로 '중생즉불(衆生卽佛)',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고 하여 중생과 부처는 철저하게 '즉'의 관계임을 제시하게 된다. 현학에서는 바로 반야에서 중시하는 '유무'의 논리를 채용하여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초기 현학에서는 하안과 왕필에 의하여 만사만물이 존재하는 근거를 '무(無)'로 설정하면서 '유'를 섭수하는 '귀무론(貴無論)'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본말(本末)', '체용(體用)' 등 이전의 중국사상에 없었던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서진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자 배위(裴頠)에 의하여 '숭유론(崇有論)'이 제창되는데, 사상적으로 본다면 '무'에 대한 '유'의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무'와 '유'가 대립되었다면 이를 지양(止揚)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곽상(郭象)의 '즉유즉무(卽有卽無)'를 통한 '독화론(獨化論)'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학은 '무'를 중시하는 '귀무론', 그에 대한 '유'의 반론인 '숭유론', 그를 '즉(卽)'을 통하여 지양한 '독화론'의 세 가지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진 시기는 이러한 현학이 시대사조로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반야부 경전이 대량으로 번역되고, 반야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유행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번역과 강설, 나아가 저술들에 모두 현학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한다. '격(格)'은 '량(量)'을 의미하는 것으로, 난해한 반야의 논리를 중국의 사상과 배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격의불교에 대하여 당시의 명승 도안(道安)의 〈비나야(鼻奈耶)〉의 '서(序)'에서는 "천축의 사문들이 경전을 지니고 올 때마다 번역되는데, 십이부(十二部) 가운데 비목나부(毗目羅部)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들이 노장(老莊)의 가르침으로써 〈방등경(方等經)〉을 겸망(兼忘)과 비슷하게 보았으므로 쉽게 유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목라"는 바로 '방광(方廣)'을 의미하고, 대승경전에 속하는 것이며, 〈방등경〉 또한 대승경전을 가리킨다. 따라서 서진시기에 대량의 대승경전이 전래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번역이 대부분 노장과 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시대사조인 '현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격의불교는 당시 불교의 주류가 되어 수많은 학파들이 출현하여 흔히 '육가칠종(六家七宗)'으로 칭해진다. 그 가운데 '본무종(本無宗)', '즉색종(卽色宗)', '심무종(心無宗)'의 세 가지 부류가 가장 유행했다고 한다.

중국 전래 번역경전 최초 정리
경전번역에 대한 기준 틀 마련
〈승니 규범〉 저술로 교단 정비
승려 성(性) 모두 '석'씨로 통일



도안 초상화.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한국인문고전연구소)

그런데 서진은 사마(司馬) 일족의 권력투쟁인 팔왕(八王)의 난(291~306)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십 차례의 전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북방 소수민족들의 침입을 겪었으며, 결국 흉노족들이 침공한 영가(永嘉)의 난(307~312)으로 50여 년 만에 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방에는 흉노(匈奴), 갈(羯), 선비(鮮卑), 저(氐), 강(羌) 등의 다섯 민족[五胡]들이 이조(二趙), 삼진(三秦), 사연(四燕), 오량(五涼) 및 하(夏), 성(成, 成漢) 등의 16개국을 세우고, 남방에는 서진을 계승한 동진(東晋, 317~420)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남방의 동진과 북방의 16국이 분할되어 격심한 전란을 벌이게 되는 중국 역사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란의 시기에 중국 민중들 대다수가 불교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는 전란의 상황에서 불교가 제공하는 피안(彼岸)의 세계에서 안심(安心)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란의 상황에서도 경전의 번역과 불법의 전파는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틀을 만들어졌으며, 중국불교사에 중국인으로서 최초의 고승으로 평가되는 도안(道安, 312~384, 혹은 314~385)이 출현하였다.

도안의 전기는 〈출삼장기집〉 권15, 〈명승전〉 권5, 〈고승전〉 권5 등에 실려 있으며, 이후 〈역대삼보기〉, 〈불조통기〉, 〈육학승전(六學僧傳)〉, 〈신승전〉 등 다양한 문헌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려 있는데, 이로부터 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안의 생몰연대는 조금의 차이가 난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출삼장기집〉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도안은 건원(建元) 21년(385) 2월 8일에 입적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를 종합하면 74세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도안의 출생은 영가 6년(312)인데, 이 시기는 영가의 난에 의하여 서진이 망하는 시기이고, 동진은 317년에 건립된다. 흔히 도안을 '서진 혹은 동진의 명승'이라고 하지만, 도안은 북방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칭호라고 할 수 있다.

도안은 12세에 출가하였지만, 얼굴이 검고 못생겨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몇 년 후에 경전을 하루 만에 암송하여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 북방의 여러 곳을 유행하다가 후조(後趙)의 수도 업(鄴)에서 불도징(佛圖澄)을 만나 10여 년간 사사했으며 수많은 경전들을 정리하고, 한편으로 주석과 서문을 썼다. 〈출삼장기집〉 권5 〈신집안공주경급잡경지록(新集安公注經及雜經志錄)〉, 〈안반수의경〉, 〈방광반야경〉 등 19종의 경전에 대한 주(注)를 달았다. 그 가운데 〈방광반야기진해(放光般若起盡解)〉에서는 경전을 강설하기 위해 서분(序分) · 정종분(正宗分) · 유통분(流通分)의 삼과(三科)로 분류하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삼장기집〉의 '경서(經序)'에서는 〈안반주서〉, 〈도행경서〉 등 중요한 경전 15종에 대한 도안의 '서(序)'가 실려 있다. 또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을 찬술하여 그 시대까지 번역된 경전들의 목록을 집성하고 있는데, 이 저술은 현존하지 않지만, 〈출삼장기집〉 등의 후대의 역경목록에서 〈도안록〉 혹은 〈안록〉의 명칭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외에 〈서역지(西域志)〉 등의 다양한 저술이 있다. 또한 도안은 당시 사문들이 모두 성이 달랐던 것에 대하여 '석(釋)'씨로 통일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도 '석도안(釋道安)'으로 하여 이후 규범이 되었다고 한다.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도안을 흠모하여 당시 도안이 머물던 양양(襄陽)을 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마침내 도안을 장안(長安)의 오중사(五重寺)에 주석하였으며, 이곳에서 계속 법을 펼치다 입적하였다.

한편 도안은 앞에서 언급한 격의불교의 '본무종'의 대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본무종은 사상적으로 왕필의 현학인 '귀무론'(본무론)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후대에 승조(僧肇)에 의하여 반야사상에 미진한 논리라고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또 다른 유명한 제자인 승예(僧叡)는 "성공(性空)의 종(宗)은 지금 그를 검증하여 보니, 가장 그 실(實)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용광로의 제련하는 노력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함이나, 마땅히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毗摩羅詰提經義疏序〉)고 논평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공의 종"은 도안의 본무종을 가리키는데, 육가칠종 가운데 가장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전래된 경전과 논서로는 반야의 참다운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도안은 중국인으로서 첫 번째 고승으로 손꼽힐 학식과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야사상에 있어서는 미진한 바가 있어서 승조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승예의 지적처럼 시대적 한계일 따름이다. 도안의 업적을 간략히 나열한다면,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된 경전을 최초로 정리했고, 경전의 번역에 대한 틀을 제시했으며, 또한 비록 현존하지는 않지만 〈승니규범(僧尼規範)〉을 저술하여 교단을 정비하였고, 승려들의 성을 '석'씨로 통일시켰으며, '본무종'의 대표자로서 반야사상을 널리 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학계에서는 중국불교의 틀을 마련한 고승으로 평가하고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④ 전생에 사슴이었던 붓다

▶ 한줄 요약
붓다의 전생 이야기 중 하나인 '녹왕본생'은 사슴왕이던 붓다가 자비를 베풀어 선근을 심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돈황 제257굴 서쪽 벽화에 도상화돼 있다. 횡권식 표현으로 그려진 벽화에는 사건의 전개가 일목요연하게 그려졌다.



아홉 빛깔 사슴, 지바라밀 전하다

붓다의 수많은 전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녹왕본생(鹿王本生)은 사슴왕이던 붓다가 자비(慈悲) 베풀어 선근(善根)을 심었다는 이야기이다. 본생설화는 대게 서(序)·본(本)·후(後) 삼분(三分)으로 구성되어있다. 붓다와 같은 성인은 전생에 수많은 선행의 삶을 통한 윤회로 비로소 성불한다는 것이다. 서분(序分)은 불타가 본생설화를 설(說)하시게 된 경위와 장소 등을 말한 것이고, 본분은 본론으로서 전생에 있어서의 불타의 경력을 말한 것이다.

후분은 본분 중에 나타난 주인공이 바로 불타 자신의 전신(前身)이라는 것과 그 외 누구는 현재 누구의 전세(前世)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불설구색록경(佛說九色鹿經)〉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림① 돈황 제257굴 서벽 '녹왕본생도' 일부. 물에 빠진 사람과 녹왕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본생도는 중생 제도의 방편의 의미를 담았다.

돈황의 257굴 벽화 '구색록경' 도상화
횡권식으로 표현…사건 전개 '한눈에'
사슴왕의 자비와 인과율 무서움 담아



그림② 돈황 제257굴 서벽 '녹왕본생도'로 물에 빠지 사람이 비밀을 알리자 국왕이 녹왕을 잡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물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허우적대며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아홉 빛깔의 사슴(九色鹿)이 그 소리를 듣고는 곧장 물가로 달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강기슭으로 던져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은 무릎을 꿇고서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비가 되어 사슴을 위해 물풀을 따다 바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사슴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물에 빠졌던 사람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떠났다.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총애하는 왕비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몸에 아홉 빛깔의 털이 나 있고 눈처럼 흰 뿔이 달린 사슴을 보았다. 다음날 왕비는 국왕에게 꿈 내용을 말하고 꿈에서 본 사슴을 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꿈에서 본 사슴을 잡는다면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고 그 뿔을 불진(拂塵)의 손잡이로 쓰고 싶어서였다. 국왕은 즉시 큰 상금을 걸고 온 나라에 알리기를, 만약에 아홉 빛깔의 사슴을 잡아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은이 가득 담긴 금그릇과 금이 가득 담긴 은그릇을 하사하고,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겠다고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왕이 큰 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귀를 얻고 싶어 즉시 왕국으로 가서 비밀을 알렸다. 국왕이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많은 군사를 산으로 보내어 사슴을 잡아오게 했는데, 다행히도 아홉 빛깔 사슴의 좋은 벗인 까마귀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소리쳐 사슴에게 알려 주었다. 사슴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까마귀가 공중에서 내려와 사슴의 귀를 쪼니, 아홉 빛깔 사슴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났지만 이미 병사들에게 포위되니 상태라 도망칠 길이 없었다.

사슴은 국왕 앞에서 말했다. "저는 나라에 공이 있으니, 저를 쏘지 마세요. 저는 이 나라 백성 한 명을 구해 준 적이 있어요."

사슴은 거듭 왕에게 여쭈었다.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누가 알려 주었지요?"

"수레 옆에 있는, 저기 얼굴에 부스럼이 난 사람이요."

사슴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슬픔과 분함이 복받쳐 국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깊은 물에 빠졌는데, 빠져 죽기 직전에 제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강기슭으로 건져냈어요. 제가 사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겠노라 약속했지요."

왕은 사슴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질책했다. "너는 큰 은혜를 입고서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배신을 했으니 어찌된 노릇이냐?"

그래서 국왕은 아홉 빛깔의 사슴을 산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물에 빠졌던 이는 몸에 종기가 나고 입에서는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이 모두 혐오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왕비는 화가 나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곡절이 많고 담겨진 의미도 깊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주 훌륭한 우언 고사(禹言故事)이다. 이 본생도는 아홉 빛깔 사슴의 형상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화가는 낡은 규칙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지를 창조해 냈다.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슴과 국왕이 만났을 때에, 사슴은 바로 무릎을 꿇고 왕에게 여쭌다.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누가 당신께 알려 주었는지요?"

인도의 고대 조각이나 서역(西域)의 초기 벽화를 막론하고 사슴의 형상은 모두 철저히 불전(Nidana)에 근거해서 처리되었는데, 즉 사슴이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고서 애원하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돈황 벽화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데, 여기에서는 아홉 빛깔의 사슴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빠졌던 사람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국왕 앞에서 당당하게 규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아홉 빛깔 사슴의 형상에는 고대의 화가들이 쏟아 부은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제257굴 서벽에는 녹왕본생(鹿王本生)에는 물에 빠진 자와 녹왕의 모습이 그려졌다. 녹왕에 의해 구조된 물에 빠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녹왕을 향해 노비가 되어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다. 제257굴 서벽에는 국왕과 녹왕의 모습이 함께 그려졌다. 화면에 나타난 녹왕은 국왕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내민,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그는 당당하게 국왕을 향해 물에 빠진 자의 배은망덕함과 비열함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다.

또한 제257굴 북벽에는 오백 마리의 백조를 탄 비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수마제녀인연(須魔提女因緣)' 고사화 중 일부분이다. 그림 중에 비구승 대가전연(大迦旃延)을 둘러싸고 앞뒤와 아래에 6마리(실제로는 500마리를 뜻함)백조가 있다.

돈황 제257굴 서벽 '녹왕본생도'는 전폭 가로 96cm, 세로 385cm로 표현형식은 장방형(長方形) 구도로 단락을 9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야기가 치밀하고 생동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아홉 장면은 대략 이와 같다. 1.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 달라고 외친다. 2. 아홉 빛깔 사슴이 물에 빠진 사람을 업고 물에서 나온다. 3. 물에 빠졌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목숨을 구해 준 사슴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4. 아홉 빛깔 사슴이 산에 누워 있다. 5. 왕비가 국왕에게 꿈 내용을 말하면서 아홉 빛깔의 사슴을 잡아 달라고 한다. 6.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국왕에게 비밀을 말한다. 7. 국와이 병거(兵車)를 이끌고 말을 타고서 간다. 8. 국왕이 말을 타고 산으로 들어간다. 9. 아홉 빛깔의 사슴과 국왕이 만나게 된다. 이야기는 최고조에서 끝난다.

이 본생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색록(九色鹿, 아홉 가지 색깔의 사슴)에 의해 구조된다는 장면이다.(그림①) 그림의 대체적인 내용은 사슴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나 이 사연을 밖으로 누설하지 말라고 했으나 때마침 욕심 많은 이 나라 왕후는 아홉 빛깔 사슴의 아름다운 가죽으로 옷자락을 장식하고자 하였다. 이에 물에 빠졌다가 아홉 빛깔 사슴에 의해 구출된 자는 상 받기를 탐내어 왕에게 밀고하여 아홉 빛깔 사슴을 잡게 하였다.

그 후 아홉 빛깔 사슴의 사신(使臣)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물에 빠졌다 구출된 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사실 전체 사건의 전개는 크게 인명구조, 기서(起誓), 밀고, 체포 등 네 단락으로 나뉘고 있다.(그림②)

화면은 횡권식(橫卷式)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사건의 전개를 옆으로 길게 연결하여 그림으로 그려내는 표현형식으로 오늘날의 동영상을 사건, 사건마다 정지시킨 것과 같은 표현방식이다. 이 벽화는 양 끝에서 시작하여 화면 중심에서 사건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특이한 순서로 배치하여 아홉 빛깔 사슴이라는 선량한 붓다의 전생을 잘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구도가 화면 중앙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인물, 차마 그리고 산수 배경과 함께 아홉 빛깔 사슴의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화면 중심을 두드러지게 처리함으로써 이야기 줄거리를 쉽게 전달해 주고 있다. 아홉 빛깔 사슴이 화면의 전반에서 가장 많은 위치와 공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이 부분을 화면의 시각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어 당시 화사(畫師)들의 독특한 조형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의 두루마리 형식의 그림, 연환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서 그림 속 장면을 통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본생도 벽화는 관람자의 눈이 가장 먼저 비치는 화면 중앙에 중심 주제를 배치하고 좌우로 살펴 부제를 살펴보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 이야기의 구성이 치밀하고 생동감 있으며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색채의 처리는 '요철법(凹凸法)'으로 즉, 돋으러 지게 칠하고 있으며 사물의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힘차고 수법이 자유롭고 능숙하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중국 전통 회화기법에는 없었던 것으로 북위시대 막고굴 벽화가 서역미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사슴왕의 본생설화는 자비, 보시, 지계, 인욕 등 지바라밀(智波羅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생설화의 불타는 동물이거나 조류인 경우가 많은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살 천신, 국왕, 걸인 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설화를 통해서 인도 고대 신앙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세상에서 선근과 정진을 쌓음으로써 이미 부처가 되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오도(悟道)의 정각(正覺)의 내용인 연기법을 중생에게 보이신 것은 오직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이라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② 적을수록 풍요롭다



▶한줄 요약
현재 전세계는 GDP지표에 매몰된 성장주의 사회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소비가 이뤄지며 환경과 인간은 자본에 의해 무한으로 착취를 당하며 시름하고 있다. 성장아닌 탈성장과 성숙의 삶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해법, 탈성장 · 성숙사회



한 공업지구의 모습. 현재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는 무한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간도 해당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닌 성숙이다.

무한성장 생명은 없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으며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기쁨이다. 그러다 10대 초반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될 무렵 수염이 자라고 성징도 나타난다.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될 무렵까지 급격히 성장하여 매년 눈에 띄게 키가 자란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20대 중반 쯤 되면 대체로 자랄 만큼 자라 더 이상 성장발육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는다. 이제 체형 성장을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신체의 성숙은 그때부터 계속돼 이후 100세까지 75년간 지속된다. 외형적인 성장은 20대까지이고 그 이후는 '나이값' 으로 표현되는 성숙의 시기인 것이다. 이 과정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과 유기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시절부터 초기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일정한 단계의 성장을 이룬 뒤에는 더 이상 외형적 성장은 중단되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이다.

무한성장주의 산업사회

이토록 자연의 모든 생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뒤에는 질적으로 무르익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의 산업사회의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그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착 지점없이 무한히 성장하는 것을 당연한 정언명령으로 여긴다. 성장(Glowth)이란 말은 키가 커지듯 높아지고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내적인 성숙(Mature)이나 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저 양적으로 직선적인 발전을 뜻할 뿐이다.

이러한 직선적인 성장주의는 '진보' 라는 표현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 역사 발전을 선형적이고 직선적으로 최대한 '수직에 가까운 성장' 을 '좋은 것' 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 고 평가되는 사회를 진보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낫다' 의 기준은 생태환경, 사회문화는 무시하고 오직 '경제성장' 일뿐이다. 아무튼 성장의 최종 종착지는 없다. 무한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계는 이러한 성장의 직선성 ,무한정성을 용인하지 않는다. 자연계는 순환하고 윤회하는 생태시스템이다. 서로 연관맺으며 상호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인이자 결과로 삼으면서 순환하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이다.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은 히브리 기독교적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야훼가 천지를 창조한 '태초'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종말' 을 향해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성장주의 경제와 선형적인 역사관은 바로 기독교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윤회의 시간관은 다르다.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윤회하고, 사물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반복하며, 인간은 생노병사(生老病死)를 윤회하는 순환의 시간관이며 자연관이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바로 이러한 역사관과 시간관에서 비롯된다. 나에게 나아가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과 윤회의 인연과의 이치를, 무한히 성장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직선적인 역사인식과 사회경제의 문화로 인식하여 자연을 무한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이 멈추면 곧 '죽음' 이라고 착각한다. 마치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나, 돌지 않으면 쓰러지는 팽이처럼 성장을 가속화해야 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 성장주의가 기후위기와 인류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한성장의 파국적 신화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지표가 인류를 파탄낸다

1930년 대공황기에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가 황폐화되자 각국의 정부는 대책에 부심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벨라루스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매년 미국이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돈의 가치로 나타내는 회계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측정에 토대를 제공한 국민총생산(GNP)이였다. 이것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를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쓰러뜨리면 GDP가 상승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이 아파 병원을 많이 이용해도 GDP는 올라간다. 자연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생물이 죽든 말든, 자원이 고갈되든 말든, 인간의 협력이나 배려, 도덕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지표 매몰된 성장주의 사회
지구 환경 · 인간 무한착취 '시름'
선진국 과도한 소비가 환경 파괴
성장이 아닌 '성숙의삶' 지향해야

GDP성장은 그야말로 생산(Product)량을 성장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다. 이 생산은 자연으로부터 추출, 채굴을 기본으로 한다. 무한한 성장은 무한한 생산이 있어야 가능하며, 무한한 생산은 곧 무한한 소비가 있으며, 무한한 폐기를 뜻한다.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한정한 자원채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오늘의 산업사회 자본주의는 자연과 자원이 무한정하다는 전제위에 서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잘못된 전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실제의 팩트는 '하나뿐인 지구(Our Sole Earth)' 라는 사실이다. 지구는 무한하지 않고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의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위기와 파탄을 초래하는 것은 자연은 무한하다는 미망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탐욕의 산업사회 자본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후위기, 선진국들 착취서 비롯

세계경제가 매년 3% 성장을 한다면 그 증가의 속도는 경제총생산이 23년마다 2배가 되는 것이며, 46년이면 4배가 되고, 100년이 되면 20배로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후 100년이 되면 370배가 되고 다시 100년이 지나면 7000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300년 만에 7000배나 늘어나는 경제규모가 된다고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은 말한다.

오늘날 경제생산량은 자연자원으로부터 추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배 성장한다는 것은 20배로 나무를 베거나 석탄이나 석유를 더 많이 채취하고 우라늄을 더 많이 채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뿐인 지구는 그 매장량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폐기와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의 한계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성장(Glowth)이 문제다. 그래서 탈성장(Deglowth)이다.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양식이 있음에도 오로지 성장주의만 고집하는데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과소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면 가난한 나라의 저소비가 바로 지구가 파탄나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풍요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에 있는 자원의 대량채굴과 수탈을 통해 벌어들인 풍요이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노예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통해 누린 성장이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1차 피해는 원인 제공자인 북반구의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전인류가 똑같이 1/N의 동등한 책임이 있지 않다. 얼마 전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자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차별적 책임'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탈성장, 성숙사회의 가치들

우리는 위기를 앞두고 포기와 선택을 강제 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국 탈성장이며, 성장을 패절하고 포스트(脫) 자본주의 모델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바꿔야 한다. 파국의 원인인 GNP, GDP를 폐기하고 생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안적 지표로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참진보지수 (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나 지구행복지수 (HPI, Happy Planet Index)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많은 것, 높은 것을 지향하는 성장과 풍요의 가치가 인류를 비극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적게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며 "성장사회가 아니라 성숙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할 방향이다. 또한 성장시대는 '위로 성공하는 삶' 을 지향했지만, 성숙의 시대에는 '옆으로 성공하는 삶' 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돌봄, 환대, 협력,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이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는 농업자립, 순환사회, 도시텃밭, 공동체 통화, 공유사회, 기본소득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선택하는 사회이다. 특히 최근 '커먼즈' 라는 공유의 가치가 중요한 문화가 되고 있다. 공유가 넓어지면 개인의 소유의 의미도 약해진다.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글에서 오늘날 위기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담장치기 '엔클로저' 로 인해 점차 더 넓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자원을 채취하는 경쟁이 갈등을 초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푸르동은 소유사회를 해체하는 것, 무소유사회를 만드는 것이 위기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말한다.

짧은 기간의 이익에 급급한 오늘날의 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4~5년간의 선거기간만 책임지는 정치구조가 아니라 100~200년 뒤의 후손들을 고려하고 동물과 식물 등 자연물의 이익과 권리까지 고려한 생태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 성숙사회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

제이슨 히켈은 이렇게 묻는다. "세계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찬양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격려하면서 왜 경제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가 최종적 선택지라고 단정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 시도도 하지 말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자리이타와 정법수호 서원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⑦ 삼대원(三大願)

이때 승만 부인은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원을 발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진실한 서원으로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편안하고 안온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선근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정법의 지혜가 얻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후에는 싫증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정법을 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서원입니다. 제가 정법을 거두어들이고는 몸과 목숨과 재산 등을 버려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서원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승만 부인의 이 서원을 수기하였다.

"세 가지 큰 서원은 모든 색(色)이 허공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원이 모두 이 세 가지 큰 서원 속에 들어 있으니 이 세 가지 서원은 진실로 넓고 큰 것이다."

열 가지 서원을 발한 십대수장(十大受章)에 이어 다시 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삼대원(三大願)장이 이어져 나온다.

〈승만경〉은 승만 부인의 서원을 중심으로 대승의 정법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 키워주는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중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법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만다. 이른바 믿음(信)과 이해(解)는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을 신(信), 해(解), 행(行), 증(證) 4 단계로 말하기도 한다. 정법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나 곡해가 되어 사견(邪見)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승만경〉은 다른 경전보다 정법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한다. 또 대승이라야 정법이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삼대원 속에 항하의 모래 수만큼 많은 보살의 서원이 허공 속에 색(色)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고 하였다. 첫 번째 원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이타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불교의 목적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원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승의 정신인 이타가 없이는 자리가 없다는 숨은 뜻이 들어 있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앞서는 현대사회는 남을 위한 진정한 이타심이 부족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에서 승만 부인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다. 바른 법에 의해 중생의 삶이 더욱 성숙되고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정법의 지혜에 의해 무명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보통 서원은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지극한 것을 말하나 서(誓)와 원(願)을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현수(賢首, 643~712)의 〈화엄경탐현기〉에는 마음에 따라 구하는 뜻을 '원'이라 하고 지극한 정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서'라 한다 하였다. 또 〈승만경〉의 주석서인 길장(吉藏, 549~627)의 〈승만보굴(勝鬘寶窟)〉에는 "서와 원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다는 것은 지(智)와 혜(慧), 안(眼)과 목(目)의 관계와 같은 것을 말하고 다르다는 것은 갖가지 일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서'라 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을 '원'이라 한다."고 하였다. 길장은 〈승만경〉의 십대수(十大受)는 '서'로 보고 삼대원(三大願)은 '원'으로 보았다.

서원은 대승의 이타정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자리이타를 함께 포함하지만 이타에 치중하는 것이 보살도이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이나 사섭법(四攝法)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제도 할 때 쓰는 마음이요 방법이다. 사홍서원(四弘誓願)도 마찬가지이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성제(四聖諦)를 염두에 두고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게 하고, 법문을 배우게 하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신해 신행은 성불 위한 중요 수행법

〈信解〉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㉚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불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묘법연화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루(無漏)의 부사의(不思議)한 법은 심심하고 미묘하며, 붓다는 이미 그것을 얻었고, 나만이 이러한 모습을 알며, 시방의 붓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라. 제불의 말은 다르지 않으니 붓다가 말한 법에 대해 마땅히 큰 믿음의 힘을 내야한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에서 "괴로움과 죽음에 임해 의지할 바는 오직 관세음이라는 것을 매 순간에 의심치 말라"고 한 것은 수행자가 갖춰야 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나 본원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신해(信解)의 신행은 성불에 도달하기 위한 보살도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苦와 死에 임해서 의지할 바는
오직 '관세음'인 것 매순간 기억

불자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 명확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며, 보살도를 실천해 나가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환언하면 부처님이나 대보살들로부터 종교적 가피를 얻기 위해 수행자가 불보살님에게 귀의하고 그 가피력을 구하는 마음자세와 실천적 태도를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증장시킨다.(信爲道元功德母 增長一切善法)"고 하였고, 또한 〈대지도론〉에서도 "불법의 큰 바다는 신(信)으로써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지(智)로써 능히 건널 수 있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중생들을 위하여 설하는 이 [염불]법문의 [공덕]은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고 믿음의 공덕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론우파제사(妙法蓮華經論優波提舍)〉에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은 62억 항하사와 같은 제불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과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믿음의 힘(信力)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필경(畢竟)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힘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구하길 위해 관세음을 필경으로 믿는 것이며, 둘째는 공경심을 내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이와 같은 공덕을 나도 또한 필경으로 얻기 때문이다."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요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수기품'에서 설해진 내용은 성불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믿음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이는 곧 부처님께서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어 큰 보살과 여러 성문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믿고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여야 비로소 여래의 무상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⑦ 스스로는 환(幻)이 아니다

'상황'은 조건에 의한 것

수행승들이여,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모든 번뇌의 경〉

뭇 삶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태어남,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을 보고 있는 자는, 생각을 아무리 굴리고 굴려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린다. 마음을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마음을 보고 있으면 생각에서 일어난 이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자각과 의지가 생긴다.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는 상황을 벗어나려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황은 괴로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을 멸(滅)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다른 상황으로 대체되어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할 걸' 후회를 한다. 바랐던 미래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을 살지 못한다. 그 뿌리를 바르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 회한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바르게 봄, 바른 배움은 글자가 아니다. 마음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바름은 무엇에서부터 분별이 일어난 것인지를 가만히 지켜본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가? 상황이다. 매일 쉼 없이 들이닥치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온 것인가? 아니다. 상황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에서 왔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것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몸과 마음은 환(幻)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의 세상이 아닌 각자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몸 자체가 조건에서 왔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실체성이 없다.

이렇듯 몸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언가 '있다'고 우리가 느낌으로써 그 조건이 움직여버린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냥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스스로는 환(幻)이 아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아무 마음을 내지 않는 자이다.

이것과 같이 있으면서
이것과 같이 손뼉 칠 수 없는 것, 참 즐거운 일.
이것은 항상 나와 손뼉을 치려고 한다.
맞추면 맞춰서 탈이 나고
맞추지 않으면 맞추지 않아서 탈이 난다.
부처가 와도 조사가 와도 맞추어줄 손이 없다.
빈둥빈둥 홀로 먼 산만 바라보다가 홀로 꼬르륵 거린다.
텅 비어 꼬르륵 거리는 소리 참설법이다.
보는 것에 내가 보는 것이 없는 봄을 보고,
듣는 것에 내가 듣는 것이 없는 들음을 듣는다면,
그때 그 소리, 그때 그 모양
누구의 소리고 누구의 모양인지를 즉(卽)하리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6호 | 17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 • •
010-5049-1533

卍佛寺 프로그램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불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 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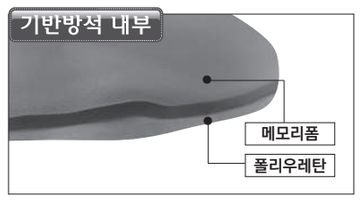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6호 | 18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9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2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설치, 음향완비, 도배)
- 5년전 인수금액보다 3백만 절상

보문산 약사도량 지장사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급) 안 내

- 부산 영도구 용석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 대지89평, 기자재포함, 서재1, 방1, 산신각1, 용궁1, 해수관음상1
- 가액 5억1천만원 사정상 급하게 양도(절충가능)
- 네이버 검색시 사찰사진 있음

010-2350-8202
010-3653-5883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 2백만, 월세 20만 권리금 3백만

010-2204-837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 5천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 1000-110, 2000-100
- 낙성대역근처 3층
- 도시가스, 법당, 방1, 욕실, 공양간
- 민원일체없음, 시설비 협의

010-2855-9899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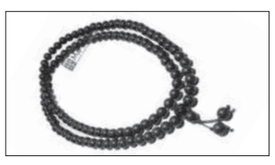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④ 부산 해동용궁사 향나무

죽은 속살이 피운 향에 묻은 '왜'

부산 해동용궁사에 가면 사찰을 각인시키는 두 개의 구(句)를 만난다. 산문 표지석에 새겨진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과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만복문 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듣는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에서 성주괴공하는 삼라만상은 왜 일어나는지, 공(空)과 연기(緣起)는 왜 있는지, 그 이면의 속사정 같은 걸 알고 싶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에 대한 깨달음의 언어를 남겨놓았고, 그래서 모든 게 스스로의 정진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 할 것 같아 '왜'라는 의문사에만 꽂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주문 옆 조릿대 사이로 관음성지 빨간 글씨를 보는 순간 항의성 질문은 잠시 내리고 관세음보살에게 우리 가족을 비롯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기로 작심하면서 편안하게 용문석실을 통과해 백팔장수계단을 내려간다. 음습한 겨울숲이 익숙한 중부지방 거주자에게 보여주는 바다 같은 푸른 잎들, 그 앞에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석등을 보는데, '나는 왜 절을 찾는가'라는 반복의 질문이 튄다.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불교는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불교를 통해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 무엇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는 게 현실이지만, 불교는 괴로움 때문에 생긴 종교라고. 그래서일까? 온 세상이 극락정토이면 고통이 없겠지만, 사는 곳에 온갖 아픔이 있어 찰나라도 고통을 텅 비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상징들이 한곳에 집합한 절을 찾는 걸까?

대웅보전으로 향하려는데, 기와 담장 위로 덤불처럼 짙푸르게 솟은 향나무가 있어 발길을 잡아챈다. 좌회전하자마자 멀리 금빛 지장보살이 파도 소리를 들려주며 유혹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나무부터 보겠다는 작정이 앞서 약사불전에 들어간다. 정면에 팔공산 갓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처럼 머리에 넓적한 보개를 이고 계신 돌부처가 희게 빛나는데 그 위 맞배지붕 처마 아래 '雙香樹佛(쌍향수불)' 글자가 또 질문을 만들어낸다. 진짜 계신 부처인가?



부산 해동용궁사 향나무.

일단 의문은 접고 삼배부터 드린 뒤 주위를 둘러보는데, 쌍향수불 오른쪽에는 '陽양香향樹수, 남자 향나무, Men Juniper, 수령 200년', 왼쪽에는 '陰음香향樹수, 여자 향나무, Woman Juniper, 수령 200년'이라는 안내문이 나무줄기를 감고 있었다. 양향수는 두 그루라 Men이라 하고, 음향수는 한 그루라 Woman이라 하는지 궁금해 성심껏 살피는데, 밑동 주위에 향나무 비늘잎들이 수북하게 에두르고 있어 가늠을 중단하고 암수딴그루인 향나무 성별을 판별하려다 이마저 포기한다. 봄이면 가지 끝에 달리는 작은 수꽃이삭 혹은 암꽃이삭으로 암수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겨울이고 가끔 암수한그루도 있다고 하니 중하지 않은 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향기가 나서 향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 향의 진원지는 꽃이나 잎이 아니라 죽은 조직인 나무의 속살이다. 살아생전 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베어져서 오래 땅에 묻히면 묻힐수록 좋은 향을 낸다는 향나무의 향을 얻으려면 또 나무를 자른 뒤 인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슬프게도 향나무가 빛날 때는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며 땅의 산 자와 하늘의 죽은 자를 연결시켜주는 향불 연기가 피어오를 때이다. 다시 고개를 올려 쌍향수 가지 끝 잎들이 닿으려는 암막새와 수막새들을 보는데 생명체와 생명이 서로 맺으려는 인연이 어른거려 '왜'를 싣고는 대웅보전으로 내친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반복되는 관세음보살 독송이 애절해 아름다울까, 대웅보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도량이 반야용선으로 변신하는 날 속죄의 나를 실어갈 용들이 바다 가까이 진군해 있어 아름다울까, 고려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930년대 보문사로 중창했고 1970년 초 해동용궁사로 이름을 바꾼 관음성지 곳곳에 향나무들이 울울창창 있어 아름다울까?

고(苦)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우주에 한가득 진리의 향기를 나누신 부처님은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菩提樹) 아래에서 깨닫고 사라수(沙羅樹)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해수관음상이 바라보는 바다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왜'라는 질문은 퐁당 던지고, 다시 약사불전 쌍향수에서 108배라도 올리면, 내가 향을 싼 종이인지, 고기를 꿴 새끼인지 미욱하나마 분별하여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향나무 바늘잎 크기 정도는 이해하게 될까? 그럼 나는 이 겨울 새에게 먹힌 뒤 위산을 받아 화학작용을 거쳐 스스로 발아할 수 있는 향나무 열매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변형이 되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향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럼 속인의 '왜'는 묻어버릴 수 있을까? 철썩 파도가 뺨을 때린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④ 백석의 '여승'

여승, 그 서럽고 높고 쓸쓸한
〈女僧〉

여승(女僧) / 백 석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고형진 엮음,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시절, 나는 여승만 보면 눈물이 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토방 앞에 서서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여승에게 어머니는 쌀 한 바가지를 건넸다. 그러면 여승은 잿빛 바랑에 그 쌀을 받아 담았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1960~1970년대만 해도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을 하고 살았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한 쌀로 절간을 운영하며 먹고 살았다. - 그런데, 나는 탁발하러 온 스님들, 그 중에서도 여승의 염불소리와 얼굴만 보면 괜히 눈물이 났다. 어린 나에게 여승은 감히 가닿을 수 없는 높다란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여승에게서 나는 경이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천사를 느끼고, 누님을 느끼고, 어머니를 느끼고, 고모를 느끼고, 이모를 느꼈다. 가닿지 못할 모습인데도 항상 포근하고 좋았다. 서럽고 짠하기도 했다.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었다.

문청(文靑) 시절, 그런 나에게 백석의 '여승(女僧)'이 찾아왔다. 진짜로 서럽고 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여승은 나의 영원한 '로망(Roman)'이 되고 말았다. 가슴 두근거리면서도 짠하고, 좋으면서도 서럽고, 높으면서도 포근하고, 누님 같으면서도 연인 같고, 이모 같으면서도 천사 같은, 로망이었다. 불순하게도, 불경스럽게도, 나는 그것을 '사모(思慕)'라고 이름 지었다. (짐승 같이) 나는 그런 여승과의 황홀한 사랑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두 명의 '여승'을 더 만났다. 송수권의 '여승'과 유강희의 '여승'이다.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안에 누워서 고뿔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을 쓴 여승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낮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발치로 바리때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얍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룻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송수권의 '여승', 송수권 시집 〈꿈꾸는 섬〉 중에서, 문학과지성, 1983)

해석이 필요 없는, 내 마음의, 꿈의, '여승'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년 뒤, 나에겐 또 한 명의 '여승'이 '연애'로 다가왔다.

"이승의 빛과 저승의 빛을 한데 섞으면/ 저런 빛일까/ 처연하게 아름다운 빛/ 나는 순간 합장을 하고/ 여승은 조용히 그 꽃을 가리켰다/ 그 꽃은 부용화였다/ 함박 비를 맞고 있었다/ 유난히 파르란 여승의 머리에선/ 범부채 냄새가 났다/ 빗방울보다 가벼운 가사가 소복이 여승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외려 몸이 굳어지고 입은 굳게 닫혀진 채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다/ 나는 그저 여승의 발부리 앞에 엎드려 누님이라고 단 한 번만/ 불러보고 싶었다/ 어린애처럼 소리 없이 울먹여보고 싶었다/ 여승은 절의 오래된 내력과 생의 덧없음에 대해 아직도/ 선 채 말하고 있었지만/ 내게는 잔잔한 미소로만 들리었다/ 오늘은 칠월칠석날 대적광전에선 법회가 끝나고/ 모두들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승은 극구 공양을 하고가라고 했지만 난 쫓기듯/ 그곳을 떠나왔다/ 내 전생의 누님 같은 여승은 꼭 부용화를 닮아 있었다"-(유강희의 '여승-귀신사에서', 유강희 시집 〈오리막〉 중에서, 문학동네, 2005)

작자(시인)는 다르지만, 세 명 다 똑같은, 아니 똑 닮은 '여승'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승'은 그대로 굳어져 나의 영원한 로망이 되어 있다. '여승'을 만나면 중[僧]답지 않게 지금도 내가 가슴 설레는 이유다. 또한 '여승'이라는 주제(제목)로 내가 아직까지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하는 그 '여승'에게서 나는 아직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백석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름은 백0, 출생지는 00으로 나오는 시인이었다. 월북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석의 생몰연대는 1912~1996년이다, 본명은 백기행이고, 평북 정주 출신이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김영한(1916~1999, 법명 길상화)이 백석의 연인이었다. 백석은 그녀에게 '자야(子夜)'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길상사는 자야가 운영하던 고급요정 '대원각'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다.

나의 불순한 생각 또 하나. 지금도 나는 가끔 남편도 떠나버리고(가출), 딸도 서럽게 떠나버린(죽음) 30대 중후반의 '슬픈 여성'이 삭도로 삭발하는 장면을 꿈꾸곤 한다. '여승'에 대한 지독한 나의 연모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탈 종 공 고

• 포교원명 : 은혜사 포교원
• 교 임 : 보리심 (속명 : 장옥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34(진관동) 수원빌딩2층

위 포교원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청룡암
• 주 지 : 청 룡 (속명 : 이종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3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대한불교관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❷ 마음에 꽃 피우기

▶ 한줄 요약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공동체를 화합하게 만든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마음챙김이다.



행복을 만드는 기술 ‘마음챙김’

마음에 꽃피우는 수행법

수행학교가 운영되는 플럼빌리지에는 매주 마음에 꽃피우기(Beginning anew)’ 수행을 합니다. 먼저 플럼빌리지의 모든 대중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신선한 꽃이 꽂혀 있는 꽃병을 중앙에 두고 둥그렇게 둘러앉습니다. 호흡을 관하면서 진행자가 개회사를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장점 찾아내기, 나의 잘못을 참회하기, 나의 상처와 고통 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하기입니다. 이 수행은 가족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다쳐 오랜 세월 동안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의사소통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할 준비가 되었다면 합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합장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발언자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꽃이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꽃병을 집어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그것을 본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발언자는 앞에 놓인 꽃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 마음의 꽃에 물 주는 수행을 합니다. 마음의 꽃에 물을 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언자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하고 훌륭한 재능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할 만한 장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재 꽃이 담긴 꽃병을 갖고 있는 발언자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발언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가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의 나머지 세 단계에서도 나누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계속 이어갑니다.

말을 다 끝낸 후에는 꽃병을 조심스럽게 다시 방 중앙에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 방해했던 말, 후회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경솔한 말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시간은 우리가 지난날 범했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을 다시 참회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꼬여 있던 마음 속 매듭이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공손하고 상냥한 말로 해야 합니다. 관계를 치유하고 강화하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관계에 해를 끼치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직설적인 말로 인해 관계가 다시 손상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발언자의 이야기는 더욱 아름답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발언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것이지 판단하고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더라도 계속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그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내면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지적하고 말대답을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면 며칠 뒤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시간은 그가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 스스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청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고통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생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행동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다면 관계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서 행복 기술 익혀
더불어 사는 것도 기술이 필요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인
마음 챙김으로 공동체 도와야

이 수행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잠깐 동안 호흡합니다. 또 가끔은 포옹명상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수행했다면 기초 수행단계만 끝내도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기게 되죠.

포옹명상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은 붓다 시대 포살법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도 승가에서는 보름과 초하루 전날에 포살법회를 하고 있지요. 플럼빌리지에서 하고 있는 포옹명상은 1966년 아틀란타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류시인이 나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스님을 한번 안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더군요. 베트남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선사禪師니까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그녀가 나를 껴안았을 때 나는 순간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나는 서양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려 면 서양 문화에 적용되는 수행방법을 고안해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포옹명상입니다. 포옹명상은 동서양의 문화를 조합한 것이에요. 이 수행은 상대방을 두 팔로 껴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껴안고 두세번 등을 두드리는 것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포옹명상이 시작되면 먼저 잠깐 동안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의 호흡을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존재감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상대방을 안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면서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포옹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팔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행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참된 사랑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두움과 괴로움, 고통의 깊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만드는 기술

행복을 만드는 것은 기술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다면 당신은 행복의 기술을 잘 익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 수행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함께 사는 것은 기술입니다. 당신은 비록 좋은 의도를 갖고 한 일이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배우자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기술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본질이 바로 마음챙김이죠.

당신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어떤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애와 자비를 말하는 거죠. 부부는 두 사람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사랑을 돌보고 배우자의 장점이 꽃피도록 서로 돕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점차로 전 인류와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일일시호일

“통증서 벗어나 몽골 이주민 울타리 되고 싶어”

몽골 출신 아리오나씨 퇴글긴 교통사고로 목·허리 크게 다쳐
통역사 활동 등 이주민 지원 자처…사고 후 매일 끔찍한 고통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을 켜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잇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턱 보니까 내 부모 안 됐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안 됐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의 일체 만물 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만물이 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네가 속이 좁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너에게 맛 좀 보이겠다, 그걸 꼭 갚겠다, 악의로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육도윤회라는 것도 있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 즉 하늘 사람,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지옥이 없습니까, 어디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있지. 그리고 아귀는요,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도 보면 입은 요만한 데다 몸은 커서 그냥,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땅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귀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아귀 축생 뭐, 귀신 이런다고 해서 말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령들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겪죠. 그래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국 냄새 밥 냄새도 못 맡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축생들도 보세요.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자꾸 윤회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아수라를 좀 보세요. 사기범, 강도, 깡패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각 집단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 세계요. 인간계에는 우리 보통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인, 하늘 사람도 여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늘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늘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내 집착을 다 버리고, 이 몸의 모든 거를 집착을 안 하고 모든 거를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나 과거로부터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습이 있습니다, 습! 습을 떼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져서 인간으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 하나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녹아 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거를 맡기면….

요즘은요, "예수재래요."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 주고는 합니다. 그게 나한테 오면요, 그러니까 성도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것만 알죠. 인간은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간다면 주소고 이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공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마음속으로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속으로 한 건 누가 모르니까 모르는 줄 알구요. 내 마음을 넉넉히,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자기 혼자라도 넉넉히 써야 바깥으로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넉넉히 쓰질 않고 그냥 쥐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돌아서서 허허 웃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한 철 살 놈의 거,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도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마음이 그 강도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회개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베풉니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밤중에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하고요. 난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 그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결부가 되면요, 이제는 그런 짓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는걸요.

영계성이나 암이나 이런 종류도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고 검토를 계속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악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그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잡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굳어지고 암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붙어 있더라구요. 아주 뭐,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게. 그거를 떼어 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그것을 맘대로 조치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떼어 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가 모자라니까 못 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이 자기 대신 아파 줍니까, 죽어 줍니까, 또는 먹어 줍니까, 잠을 자 줍니까, 똥을 눠 줍니까? 자기가 꼭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움죽거리는 거 자기가 해야지 대신 움죽거려 주는 법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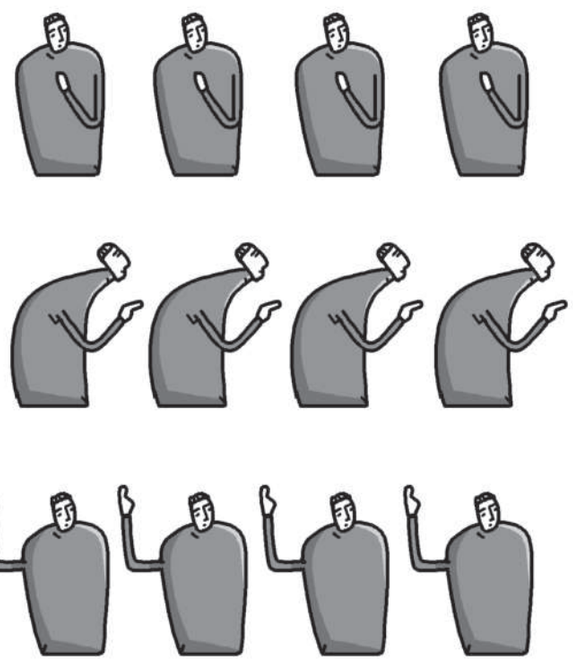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자기가 움죽거리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자기의 근본, 그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속의 인연들도 모두 같이 멸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죠. 엽렵하시다면 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떠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 그냥 자꾸자꾸 그렇게 차단을 해 버리고, 또 둘 아니게 그냥 껴안을 건 껴안고, 또 보낼 건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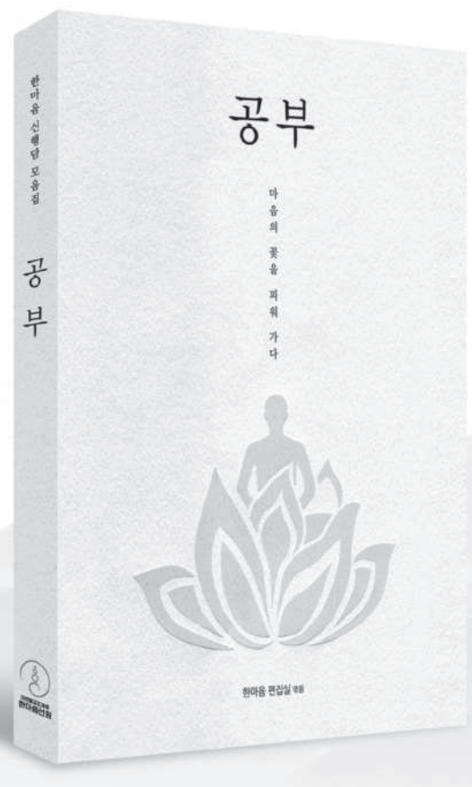
개별적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이끌어 가는 나와 지금 이끌려 가는 나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수레바퀴 돌듯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전선줄을 말했는데, 줄 속에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같이 돌아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켤 수 있고, 또는 따뜻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전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살리고 있는 그 줄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각각 집집마다 그 하나의 줄이 끊어져서 없으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추워서 살 수도 없죠, 원 근본 줄이 끊어지면요.

그렇듯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고 어떤 개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을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고, 이건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음이 좁쌀 알갱이 같은 집을 지었다 하면 이 허공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생명들이 그 좁쌀 알갱이한테 다 들어가도 또 남아요. 삼라만상을 다 한 주먹에다 쥐어도 쥐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있다면 여기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선신 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허공에 큰 문제가 생겨서 뭐, 혹성이 날아왔다 이럴 때도 '그 혹성이 내가 될 수가 있다' 는 것만 알아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혹성으로 인해서 부딪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죽으니까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내가 바로 딴 데로 피해 가죠, 해치지 않게. 그렇게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요만한 것 하나도 다 근본자리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거를 본다면 어디고 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옛날에요, 형제처럼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저녁이면 나가는데, 그 스님의 몸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스님은 그 스님이 어디를 갔는지 알아요. 아, 그 스님이 구름을 타곤 그냥 바짝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지켜보다가 가는 걸 그냥 중간에서 딱 잡아서 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열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도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얘길 해 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선, 왜 만날, 그게 뭐가 궁금해서 여자를 찾아가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찾아갈 수 있는 거나, 어느 딴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나 뭐가 틀린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속에 들어가면 남자예요. 여자 속에 들어가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부부지간에 사는 데로 들어가면 부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구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그런데 자기가 재주가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아주 그냥 치도곤을 안긴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막 빌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무술이나 축지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쩔 수가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몸을 감춘다거나 이런 것도 말이에요. 축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비행기보다 더…, 비행기에다 댈 게 뭐 있습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뭐, 뭐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저 하나의 모습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공부들 하세요. 하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급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도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도 맞는 공부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해 놓으셨지만 화엄경에도 그렇고 법화경에도 그렇고, 보면 그 말 자체에서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요, 뜻으로.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즉 말하자면 함이 없이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아주 무지한 업보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시끄러운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딪고 부딪히고 그냥 모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네 집안을 하나 고치려면 그 과거에 작성해 놓은 서류를 다시 다른 서류로 꾸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앞서 있던 서류가 없어져야 그 집안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법원이 여기 법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죽은 세상의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심부름할 땐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될 걸 어떤 어려운 집은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령들에게 빚을 진 그런 뜻이라면 내 마음으로 돈을 만들어서, 큰 바다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데려다가 천도를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돈을 조금 가져온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또 돈이 있어서 좀 넉넉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돈이 빠듯해도, 요렇게 모아서 갖다 드려도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다면 그건 더더욱 좋구요. 우리가 살 때에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쌓아 놓고 살면 그게 외려 도둑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외려. 나 편안하고 식구들 편안하고, 꾸러 다니지 않고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냥 발버둥이를 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자꾸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발버둥이 치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 산 보고 구경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걸어가듯…. 요다음에는 윤회에 대해서 얘길 좀 할까요? 아귀 축생, 그걸 거론만 하고선 얘길 못 해서 시원치 못한데요.

하여튼 나는 경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안팎을 보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거, 사는 사람들도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 말씀해 놓으신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 진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저 여러분과도 요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끔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요다음에도 또 못 만납니다. 지금 만날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로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만나야죠. 나뿐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가고 오면서 나무하고도 같이 만나고 또 좋은 돌이 있으면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돌 속에서 사람 나오는 거 모르시죠? 허허허….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상원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한- 가방을 줬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한 가방을 짊어지고 밤중에 길을 걷는데 말입니다, 어쩌겠어요? 나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해도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가다 보니까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개천을 건너뛰다가 그 살얼음을 딛는 바람에 개천에 발이 푹 빠지면서 털신 한 짝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아니에요? 맨발로 가려고 보니까 이 얼음에 살이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얼음에 살이 붙으니까 떨어지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대나무 잎새를 갖다가 척척 놔서는 그것으로 발을 쌌더니 그때야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말입니다, 그냥 이런 걸 덮어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오는데, 숯가마가 있으니까 그 숯가마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지 누가 그런 줄 알았나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 가방을 착 채요. 내가 무슨 돈을, 꼴을 봐도 돈 가진 사람 같지 않을 텐데, 거지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말이에요,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쑤욱, 돌 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그 사람네들을 다 쫓았죠. 나오니까 기겁을 해서 달아나갔죠.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서 인사를 받았는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나는 줄창 산에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이, 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마음속으로만 그냥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 그게 참 많아요. 모두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해요. 모두가 살아 있어요. 목신도 살아 있구요. 그래서 목신이든지 석신이든지 해신이든지 산신이든지 모두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 찰나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 우주를 다 주고 바꾸래도 못 바꿔요. 아주 극난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공부한 사람을 쓱 보고만 지나갔어도 그거는 좀 사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벌써 그 사람은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무주상 보시를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산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이끌어 가는 나와 지금 이끌려 가는 나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수레바퀴 돌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누구나가 다 그럴 수가 있다는 점, 더하고 덜함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죠. 그리고 축생들은 인간으로 등장을 해야, 한번 인간으로 굴러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닭도 얼마나 영악한지요, 신발을 알아봐요, 이 사람의 신발인지 저 사람의 신발인지. 나 별것 다 봤어요, 하여튼. 닭을 그냥 쫓고 싸리 가지로다가 때리고 이런 사람의 신발에는 오줌을 싸 놔요. 하하하. 그리고 아주 그냥 모이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발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추운데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나오면 얼른 비켜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못된 거보다 낫지요. 그래서 그 닭이 얼마나 됐길래 저러나 했더니 닭이 180번이나 죽어서 또 닭으로 나오고 닭으로 나오고 그래서, 180번이나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닭은 제창 그냥 사람으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 생 찰나에 이렇게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고 그대로 아주 천진하게 잘 사신다면 그거는 '왔다' 죠, 시쳇말로.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고만두겠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신 데는 등을 켜 놓죠? 불을 다 켜서 이렇게 모두 등을 달아 놓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요런 접시에다 기름 조금 해서 심지 만들어서 이렇게 켜는 사람도 많았었지요. 그렇다면 접시에 심지로 켜 놓은 그 불하고 그냥 이런 통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켠 등하고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고정되지 않다고 만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작고 큼이 없이 똑같긴 똑같은데, 똑같다면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까닭에 똑같다고 하느냐 하는 이유요. 그런데 물질로 볼 때는 이게 작고 크고가 있죠. 그러나 마음을 깨닫고 불을 켠다면 이것은 등이 아니죠. 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냥 등불은 비바람이 치면 꺼지는 불이거든요.

마음의 불이라는 건, 불씨라는 건 온통 천둥 번개를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의 불과, 그냥 등불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등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니라." 하고요.

이 중에도 마음의 불이 켜져서 지금도 훨훨 밝히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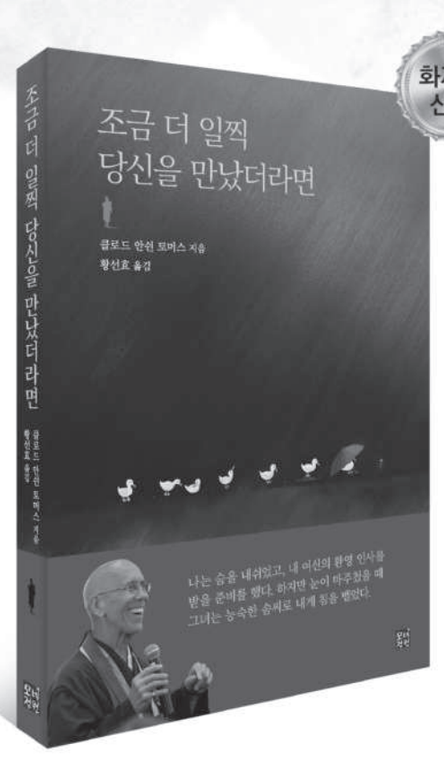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켜 놓는 데 얼마만큼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이 마음의 촛불, 마음으로 그렇게 켜셔야 되겠죠. 자기 주인공은 꼭 잊지 마시구요. 세세생생에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사회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노구를 무릅쓰고 이렇게 자비의 법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스님 감사하긴요, 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감사하죠. 모두가 감사하죠. 감사 안 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 현불 논단 |

인터넷 카르마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세상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지속돼
시대적 변화 따라 가상현실 확대도
실제 · 가상 현실 공존하는 상황 속
모호한 경계로 새로운 문제도 발생

인터넷서 무한편의 · 가능성 열렸지만
거침 없는 분노 표출 등 인격 왜곡도
악플로 인한 자살로 사회문제로 확대

가상현실에서도 인과응보는 존재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 인식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의 어울림 속에서 이어져 간다. 특히 지금은 과거의 가족,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조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등이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확장시켜주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만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금 속에서 우리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초월된 새로운 문제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잘못한 원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때때로 잘못에 상응하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이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양심, 도덕이라는 사회 속에서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생각도 점차 변화되어 왜곡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른 차원 즉 가상의 현실인 인터넷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제 현실 속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 등을 의식하여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지만, 인터넷 속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말을 극에 치달은 상태로 표현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무한한 편의와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나 그와 동시에 무한한 혼돈의 상자도 함께 열어준 것이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말과 글을 하던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과 말과 생각을 자신이 아닌 것으로 덮은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출퇴근길이나 한가로운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 검색 등을 하다가 자신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른 글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는 자신이 아닌 검은 화면 속의 다른 존재가 되어 악플이나 거침없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적는다. 그리고 정치인과 유명인들의 사생활이나 자신과 비교되는 모습이 있으면 만나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과 가상이 별개라거나 가상이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악플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다.

'인터넷 카르마', 말 그대로 인터넷 세상 속에서의 인과응보를 말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매순간 누군가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감정을 나눈다. 그리고 그 인연의 관계가 다시 업이 되어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불변의 관계는 어느 곳이든 우리 자신이 속해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생겨난다. 설령 자신이 얼굴과 이름을 가렸더라도 그 가면 안의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기에 그러한 인과응보는 누군가가 아닌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자신이 나온 쇠 자체를 갉아먹듯이 지은 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그 사람 자체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간다."

〈법구경〉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허물은 버리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행동과 말과 생각을 주의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② 지옥

凍土 디스토피아서 발견한 희망불씨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연상호 글, 최규식 그림의 웹툰이 원작이다. 〈지옥〉은 원작의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웹툰이든 드라마든 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죽는다는 것을 알리는 고지와 예고된 시간에 지옥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실행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원작과 달리 드라마는 고지가 실현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원작에서는 고지를 실현하는 괴물이 명확하지 않게 묘사돼 있어 고지에 대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반면 드라마에서는 괴물의 모습은 물론이고 수취인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세밀하게 묘사돼 있어 호러물의 잔인함이 극대화된다.

사견이지만 〈지옥〉은 웹툰 원작을 보기 드물게 잘 영상화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부산행〉, 〈반도〉 등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 내러티브상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사건이 전개되고, 테마상 동토(凍土)의 디스토피아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옥〉도 마찬가지이다. 〈지옥〉의 설정이나 플롯은 비상식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그 재해를 악용하는 무리와 재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무리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부산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이나 플롯은 원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인물들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점과 후반부의 액션신을 장쾌하게 묘사한 점은 연상호 감독의 돋보이는 역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작품 속에서 수취인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어떤 수취인에게는 20년의 시간이, 어떤 수취인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이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고지가 전달된 수취인들을 죄악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지는 종교학적으로는 원죄나 업보, 사회학적으로는 전염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진리회의 열성신도 모임인 화살촉에 의해 수취인은 물론이고 수취인의 가족까지 이중삼중으로 단죄된다는 점에서 고지는 파시즘의 징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갓난애에게 고지가 이뤄지는 대목이다. 수취인의 죄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게 정의라고 보는 새진리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새진리회가 갓난애에 대한 고지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의 죄를 지은 자에게만 고지가 실행된다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엉터리임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옥〉은 죄와 벌이라는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담의 원죄를 예수가 대속했다는 타력신앙인 기독교와 달리 자력신앙인 불교에서는 업보에 대한 참회도 개인의 몫이다.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 지성껏 참회하되 이미 지은 죄는 깊이 뉘우치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한다"고 설했다. 〈소설가〉

社 說

대선공약, 실질적 변화 이어져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정책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2월 중 예고됐던 범불교도대회 봉행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치권을 향한 불교계 시선에는 '냉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전통문화 관련 정책과 현안문제 해결은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불교계가 이들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선거를 위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터무니 없는 개선요구가 아니라, 십수년간 논란이 지속됐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으로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사찰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국립공원 제도, 문화재관람료 문제, 전통사찰 보수사업시 과도한 자부담율, 문화재 보유사찰의 전기세 부과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공약에 담긴 정책기조가 큰 틀에서 맥을 함께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입장 또한 상당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선출되던지 공약이 지켜진다면 기존 전통문화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불자들의 객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공적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의 현실화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지하고 부족한 점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불교계를 넘어 우리민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불자들 뿐 아니라 대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포교 대변화 원년 기대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전법ON'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전법 포교 혁신을 선언했다.

순례를 불교 대표 수행으로 확산시키고, 사찰 중심 전법 포교로 현장 반영을 높이며 코로나 엔데믹에 대비하여 불자들의 포교원력을 결집시키는 3대 기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기조는 크게 소통을 토대로 한 현장 중심 종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각종 종책 집행에 있어 포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8대 포교원에서 종책 수립에 앞서 종단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한 이유기도 하다. 다양한 종책은 결국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전법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포교가 기대를 모으는 까닭이다.

3년간 불교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활동이 대부분 차단되는 고통을 겪었다. 신행활동 제한, 대면 전법포교활동 중단 등으로 교세에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사찰들은 재정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흐름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다시 대면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전법포교의 기치를 새롭게 든 것을 환영할 만하다.

특히 7월 포교신행단체 결집대회에 이어 전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교결집대회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적재적소에 포교인력을 배치하고, 전문화 역량을 키우고,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여 새로운 전법에 나서는 계기가 8대 포교원의 행보로 형성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불기 2566년
개편프로그램안내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19: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목, 금, 토) 08:30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6:00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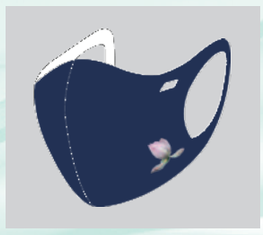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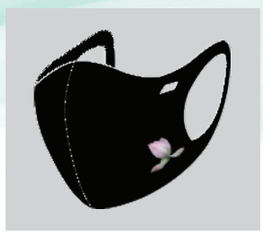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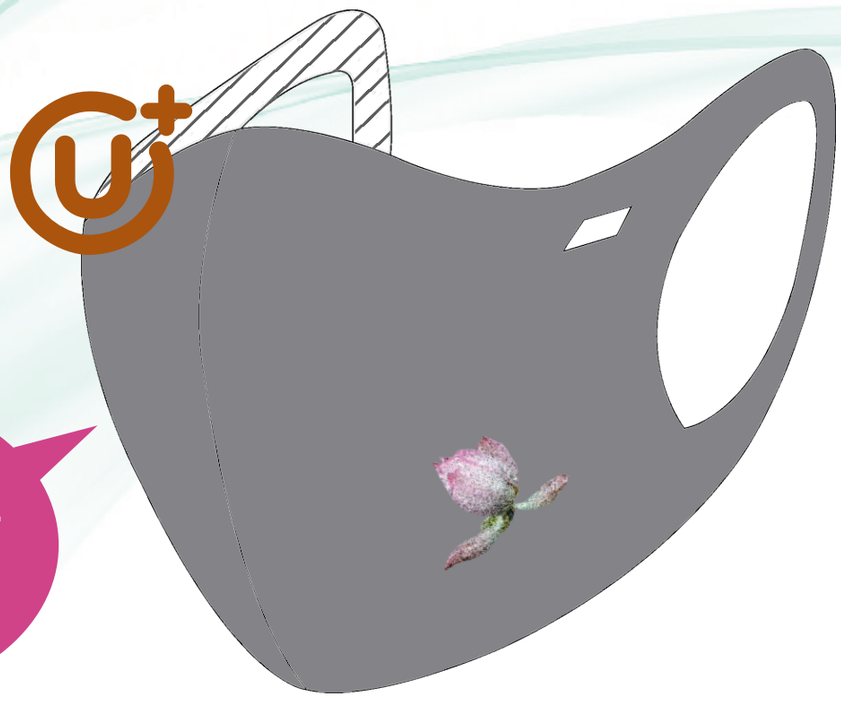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